



延政소식



The Chronicle of Yonsei Political Science & Int'l Studies (Dec. 2009)

제6호(속간3호) / 2009년 12월

〈과거의 연정소식〉



題字 : 한 순 동문('51학번)

C·o·n·t·e·n·t·s

권두언	02
연정소식	03
연정 인사이드	10
· EU센터 유치	
· 이윤호 동문('67) 강연	
· 학부생과 동문이 함께한 '연정의 밤'	
특별기획	21
· 밝고 바람직한 삶, 연정에서 피어나길 : 고(故) 송영옥 동문('00)아버지 송만순씨 인터뷰	
· 떠난 지 스무 해, 기형도('79) 다시 읽기	
연정 포커스	29
· Real Life Story : 양승함 교수편	
·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라보는 곳" : 대학원 졸업생 김석원, 서명호 동문 인터뷰	
· 새롭게 단장한 연희관	
· 학부 교과과정, 이대로 괜찮은가	
연정 파플	43
· 유연하고 진취적인 멋쟁이 신사 : 예술의 전당 사장 신희순 동문('59) 인터뷰	
· 시민운동에 꺼지지 않는 불을 켜다 : 에너지 시민연대 사무처장 이기명 동문('83) 인터뷰	
연정 추천	51
자유기고	54
칭찬 이어가기	59
편집후기	61

권두언

「延政소식」 제6호가 1년간의 산고를 거쳐 동문과 재학생 여러분께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延政소식」 제6호를 처음 기획할 때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웹진 형태로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신선하고 감동적인 기사들을 자유롭고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겠다는 뜻에서 과감하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延政소식」에 담긴 기사들은 연정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기에 우리는 그 역사의 기록을 종이 인쇄물로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저간의 상황을 전하며 「延政소식」의 정기 발간을 고대하시는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延政소식」 제6호에는 재학생 기자들이 지난 1년간 바쁘게 뛰어 다니며 취재한 기사들과 기고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자들 모두가 연정 공동체 주변의 훈훈한 얘기들을 전해 주고자 노력했고, 기사 하나하나에 절절한 사연과 가슴 벅찬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호 「延政소식」을 특별히 '사람 사는 이야기'로 기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정 사람들의 이야기'로 꾸며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는 연정 1회 졸업생으로 한국학술연구원 원장을 지내신 김명희 동문이 별세하신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별세한 00학번 송영옥 동문을 기리며 우리 학과에 발전기금을 기탁한 송 동문의 아버지 송만순 씨의 감동적인 사연도 있습니다.

그간 「延政소식」의 산실인 연희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희관 로비가 새롭게 단장되었고, 9개의 강의실이 최첨단 강의실로 탈바꿈했습니다. 담쟁이 넝쿨이 고색창연한 자태를 품어내는 연희관에도 첨단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延政소식」도 연정 공동체의 역사를 지키며 동시에 새로운 연정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호 「延政소식」은 설문조사를 통해 연정 교과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심층적인 기획을 통해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조만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번호 「延政소식」의 발간도 많은 동문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힘입은 것입니다. 여러 동문들께서 학생 기자단의 서투른 취재와 인터뷰 요청에 즐겁게 응해주셨고, 몇몇 동문들께서는 크고 작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과의 어려운 살림 걱정을 덜어주셨습니다. 그동안 「延政소식」의 발간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독지가와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치외교학과 학과장
최 연 식





연정소식

●● 연희관 소식

- 현 사회과학대학장, 행정대학원장인 양승합 교수의 주도로 연희관 리모델링 사업이 2008년 겨울부터 시작되어 2009년 3월에 마무리되었다.



- 2009년 2월 27일 송해경 동문('85)이 연정발 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우리 과에 기부했다. 송해경 동문은 2009년 1학기에 행정학과에서 한국정부론을 강의했다.
- 연희관 401호 강의실이 전 국회의장 이만섭 동문('50)의 이름을 따서 이만섭 홀로 명명될 예정이다. 헌정식은 12월 7일에 열린다.

●● 동문소식

정 · 관계 동문소식

- 이만섭 동문('50)이 2009년 8월에 「5 · 16과 10 · 26 그리고 나」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 윤원중 동문('64)이 2009년 1월 20일자로 군의 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 맹형규 동문('65)이 2009년 9월에 대통령 정부특보로 임명되었다.
- 이윤호 동문('67)이 2009년 9월에 지식경제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11월에 주 러시아 대 한민국특명전권대사로 내정되었다.
- 진석규 동문('74)이 2009년 9월에 금융결제원 신입감사로 선임되었다.
- 장광근 동문('74)이 2009년 6월에 한나라당 사무총장직에 임명되었다.
- 문호승 동문('77)이 2009년 9월에 국제청 신입 감사관으로 채용되었다.
- 이경수 동문('77)이 2009년 2월 16일자로 주 캄보디아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되었다.
- 최종문 동문('78)이 2009년 1월에 외교통상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으로 임명되었다.
- 조태익 동문('83)이 2009년 1월에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으로 임명되었다.
- 김희정 동문('90)이 2009년 6월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학계 동문소식

- 김명희 동문('46) 별세
연정 제1회 졸업생이며, 우리 과 교수를 지내고 한국학술연구원장으로 재직중이던 김명희 동문이 11월 19일 노환으로 향년 86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
- 김운용 동문('49)이 2009년 3월 31일자로 조선대학교 석좌교수로 위촉되었다. 2009년 8월에는 「미련한 사람은 자기 경험에서 길을 찾고 현명한 사람은 선배에게 길을 찾는다」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 한흥수 동문('55)이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들의 모임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 김인도 동문('70)이 2009년 8월 31일 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 송재호 동문('80, 제주대 교수)이 2009년 6월 1일~2일 제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문화관광 창의포럼의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 유현석 동문('82,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 2009년 연정학회 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재계 동문소식

- 서준희 동문('73)이 2009년 1월 16일에 (주)삼성증권 부사장에서 (주)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 박철원 동문('74)이 2009년 3월 25일에 (주)동양메이저 신규 대표이사가 되었다.
- 정용학 동문('74)이 2009년 4월 1일부로 스틸플라워 전무이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 서보윤 동문('76)이 2009년 3월 23일에 부산항만공사(BPA) 신임 경영본부장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 정영종 동문('84)이 2009년 1월 22일에 CJ그룹 대표이사 상무에서 대표이사 부사장 대우로 승진했다.

언론방송계 동문소식

- 이순동 동문('65)이 2009년 2월 18일에 열린 한국광고주협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한국광고주협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이갑우 동문('71)이 2009년 3월 5일에 있었던 대전방송 정기주주 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연정소식

- 장성환 동문('78)이 2009년 4월 20일 KBS 제주방송총국장으로 임명되었다.
- 한상덕 동문('79)이 2009년 1월부터 KBS 보도국 문화과학팀장으로 보직되었다.

●● 연정 교수진 소식

- 신명순 교수가 2008년부터 교학부총장을 맡고 있다.
- 문정인 교수가 2009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2009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였다. 2009년부터 한겨레신문 <문정인 칼럼>을 연재중이다. 2009년 2학기부터 2010년 1학기까지 중국 북경대학교 초빙교수로 연구년을 보내고 있다.
- 양승함 교수가 2009년 2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사회과학대학장과 행정대학원장직을 유임하게 되었으며, 2009년 3월 연희관 로비확장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 장동진 교수가 2009년 1학기까지 연구년을 보냈다. 2009년 4월 김만권, 김기호 등과 공역한 존 롤스의 「만민법」(아카넷 출판사) 개정 번역판을 출간하였다. 또한 Korean Journal 2009년 봄 호에 <China's Northeast Project and Contemporary

Korean Nationalism>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 김기정 교수가 동서문제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2008년 EU센터를 유치하여 4년간 100만 유로를 지원받게 되었다. 더불어 동서문제연구원에 유엔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유치하였고, 동서문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Global Economic Review가 SSCI 저널로 선정되었다.
- 김우상 교수가 주 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직을 수행 중이다.
- 진영재 교수가 송자 전 총장이 초대원장을 맡았던 통일연구원 원장 직을 수행 중이며 한국정치학회 수석연구이사로 활동 중이다.
- 김상준 교수가 2009년 1학기부터 언더우드 국제대학 정치외교학 전공책임교수직을 맡고 있으며 2009년 2학기부터 대학원 정치학과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 이연호 교수가 LG-연암 해외학자로 선발되어 하와이대학교 마노아 캠퍼스에서 2009년 1학기까지 연구년을 보냈다. 또한 2009년 8월 국가, 시장, 발전과 관련한 기본 내용들을 쉽게 분석, 정리한 「발전론」을 출간하였다. 2009년 9월에는 폴 크루그먼의 「International Economics」를 번역하였다.

- 김명섭 교수가 LG-연암 해외학자로 선발되어 2009년 2학기부터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방문교수로 연구년을 보내고 있다.
- 신유섭 교수가 2009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한미 학술교류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 김용호 교수가 2009년 2월 24일에 연구년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2009년 3월부터 사회과학대학 부학장을 맡고 있다.
- 김성호 교수가 2009년 3월 23일에 2008학년도 우수강의 교수상을 수상하였다. 2009년 2학기부터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칭센터에서 방문교수로 연구년을 보내고 있다.
- 최연식 교수가 정치외교학과장 및 국학연구원 편집편찬부장직 등을 수행 중이다.
- 조화순 교수가 2009년 1학기부터 외교통상학 연계전공 책임교수직을 맡고 있다.
- 한스 셔틀(Hans Schattle)교수가 2009년 10월에 열린 the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 Association에서 "Cosmopolitanism and Approaches to Global Citizenship in Northeast Asia"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2009년 8월에는 한국정치학회와 미국사회학회(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에 참여해

"Conveying the Qualities of 'Global Citizens' to Korean Children"라는 주제와 "Five Barriers Facing a Political Model of Global Citizenship"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배종윤 교수가 2009년 3월 1일자로 우리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 최종건 교수가 2009년 3월 1일자로 우리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 학부 및 대학원 소식

- 제 46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청연>선본이 당선되어 2009년 1학기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 김경민('04)학우가 제13회 KBS 한국어능력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 3월 12일 우리과 개강총회가 연희관 402에서 열렸다.
- 4월 3일 "동심"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정치외교학과 엠티가 있었다.
- 4월 22일 "연정, 교수님을 만나다 - 진영재 교수" 행사가 개최되었다.



연정소식

- 2009년 2월 25일 우리 학교와 이대·서강대 3개 대학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공동학술제 "YES"가 서강대에서 열렸다. 이번 여름에는 우리학과 주최로 공동학술제가 열렸다.
- 2009년 전반기에는 대학원 학생회장으로 김 용호 원우(석사 2학기)가 선출되었고, 후반기에는 신현석 원우(석사 2학기)가 선출되었다.
- 9월 9일 대학원 정치학과 개강총회가 열렸다.
- 9월 11일 정기 연고전이 개최됐다. 학부생들은 아이스하키장에서, 김기정 교수와 대학원 원우들은 농구장에서 열띤 응원을 펼쳤다.
- 11월 10일~11월 12일, "2009 '우리 여기 함께' 대학원 가을 원우주간 학술제"가 개최됐다.

●● 대학원 BK21 소식

[BK21사업 소개] 신진·후진학자 양성과 연구 및 국제 학술 교류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7년 동안 진행될 2단계 BK21사업에서 우리 학과는 2년 동안 11억 5백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BK21에 참여하는 인원은 2009년 9월 1일 기준으로 교수 13명, 연구원 4명, 대학원생 26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SSCI,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 저명 저널에 출판된 논문들과 출판된 저서들로 2009년 한해 동안

BK21 대학원생은 11편, BK21 참여 교수는 지난 5년간(2004년 9월 1일 ~ 2009년 8월 31일) 총 230편에 달한다.

- 2009년 2월 24일 서울대 박배균 교수의 특강 "아시아의 지리적 개념: 지구화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이해"가 열렸다.
- 2009년 2월 26일 한국정치외교사학회 공동주최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지정학과 외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 2009년 3월 17일 리즈 대학 Christopher Bluth 교수의 특강 "International Terrorism and the Global Challenges of the Obama Administration"이 열렸다.
- 2009년 3월 19일 게이오 대학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의 특강 "Japanese Foreign Policy: Nationalism vs. Internationalism"이 열렸다.
- 2009년 5월 14일 연희관 218호에서 핀란드 국제관계 연구소장의 특강 "The Financial Crisis and Global Governance"이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BK21 사업단과 동서문제 연구원의 주최로 열렸다.

- 2009년 5월 27일 연희관 국제회의실에서 일본 지바대학교 고바야시 마사야 교수의 특강 “Post-war Progressive Public Philosophy in Japan: Masao Maruyama and his mentor Shigeru Nanbara”가 있었다.
- 2009년 5월 27일 연희관 106호에서 미국 Moravian 대학 정화열 교수의 특강 “Transversality and Public Philosophy in the Age of Globalization”이 열렸다.
- 2009년 6월 2일 연희관 국제회의실에서 국립대만대학교 Shih Chih-Yu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 2009년 6월 2일 연희관 301호에서 Duke University, Emerson Niou 교수의 특강 ‘Public Opinions and the Security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가 열렸다.
- 2009년 6월 3일 연희관 218호에서 UC Berkeley, T.J.Pempel 교수의 특강 ‘Three Worlds of Asian Development’ 가 열렸다.
- 2009년 9월 9일 2009-2학기 BK21 참여 대학원생 선발결과가 발표되었다.
- 2009년 10월 6일 연희관 301호에서 전UN 대사 전상진 강사의 특강 ‘대한민국 건국초기 50-60년대 외교’가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BK21 아시아정치학 사업단의 주최로 열렸다.
- 2009년 10월 20일 연희관 301호에서 U.S. Naval War College, Andrew S. Erickson 교수의 특강 ‘China as an Active Maritime Stakeholder: Counter Piracy Contributions in the Gulf of Aden’이 열렸다.
- 2009년 10월 22일 연희관 국제회의실에서 Baruch College, CUNY, Peter Hitchcock 교수의 특강 ‘The Cultural Politics of the Asian Failed State’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BK21 아시아적 정치학 연구/교육 사업단과 영어영문학과 BK21의 주최로 열렸다.
- 2009년 10월 29일 연희관 218호에서 Deputy Director Nautilus Institute Seoul, Timothy Savage 강사의 특강 ‘The History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BK21 아시아적 정치학 연구/교육 사업단의 주최로 열렸다.
- BK사업단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이소영 박사(’86)가 새로 참여했다.

새로운 학생회칙 제정되다

2008년 11월 18~20, 24~27일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새로 제정된 학생회칙에 대해 찬반투표를 했다. 새롭게 제정된 연정 회칙에 관한 논의는 2008년 1학기부터 시작되었다. 논의의 시발점은 2008년 1학기 제 45대 <봉선화 연정> 학생회 회장단 및 집행부의 총사퇴 사건이었다. 총사퇴 이후 연정 공동체는 학생회칙의 부재가 가져온 어려움에 맞닥뜨렸다. 학생회칙의 부재는 회원의 범위, 총회의 의사, 의결 정족수에 관한 혼란을 낳았고 이후에도 회장의 재신임 여부, 사임의 절차, 집행부 운영 전반에 관한 절차 문제로 회칙 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1학기 정치외교학과 총회에서는 학생회칙을 새롭게 제정하기 위해 추천을 받은 강영준 학우('04)와 윤혁준 학우('07)를 중심으로 회칙제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근우 학우('04)와 최원녕 학우('07)가 회칙 논의에 참여하였다. 여름방학 기간 이상의 네 학우들은 몇 차례의 모임을 통해 사회과 학대학 학생회칙과 총학생회 학생회칙, 기타 여러 단체들의 회칙을 토대로 연정 공동체 회칙 초안을 작성하였다. 여름방학 이후에는 이 초안을 연정 커뮤니티와 과방에 게시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회칙제정위원회 참가인원들과 회칙제정활동을 자원한 김승현 학우('05)와 이주원 학우('07)가 모여서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새로 제정된 학생회칙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학과 학생의 2/3 이상 투표와 투표자의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개표 결과 총 회원

374명 중 261명이 투표하였고 (투표율 69.786%), 246명이 찬성하여 (찬성률 93.18%) 학생회칙이 가결되었다. 가결된 회칙을 근거로 2008년 12월 5일~9일에 학생회장 선거가 이루어졌다. 선거결과, <청연> 오정환 후보가 제 46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어 2008년 12월 10일부터 학생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칙 제정은 방학, 연정수련회, 연고전 등과 맞물려 연정인의 참여와 관심 부족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는 합의된 절차와 규칙, 민주성에 그 어느 단체보다 민감해야 할 정치외교학과가 공동체 의식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회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정공동체가 자신들의 규칙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자세한 학생회칙은 싸이월드 연정커뮤니티 267번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yonjong.cyworld.com>

💡 / 오수진, 김정현 기자

EU센터가 유치되다



왼쪽부터 브라이언 맥도널드 주한 EU대표부 대사, 김중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필립 티에보 주한 프랑스 대사,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상임고문,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 김기정 EU센터 운영위원장이다.

지난 3월 17일 연세대학교는 알펜관에서 “연세-삼성 경제 연구소 EU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연세대학교 EU 센터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앞으로 4년간 100만 유로를 지원받게 된다. EU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 학술 교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EU는 국내 대학을 상대로 EU 센터 유치를 공모했었고, 서울대학교에 이어 이번에는 연세대학교가 부산대학교와 함께 유치에 성공했다. 특히나 유치 과정에서 연세대학교는 동서문제연구소(소장: 김기정 교수)를 중심으로 탁월한 운영계획을 제시했다고 평가 받았다.

연세대학교 EU 센터가 중점을 두고 운영할 사업 분야는 교육과 연구, 교류 분야이다. 연세대학교 EU 센터는 유럽연합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술대회 및 모의 EU 정상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 관련 수업을 증대해 유럽 지역학 연계 전공을 강화

시키려 하고 있으며 국내와 유럽에서의 여름계절 학기 역시 구상 중에 있다. 나아가 유럽 대학들과의 활발한 교육적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몇몇 유럽 교환 대학들과의 공동학위 수여를 검토하는 중이다. 그리고 EU 전문가가 부족한 한국 현실 개선을 위해 연구 지원금을 석·박사생과 교수, 방문학자들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고상두 EU 센터 소장(’77)은 “EU 센터는 보다 많은 유럽 교환학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국내는 물론 국외의 여러 EU 관련 기관들과 교류 협력을 추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러한 중점 사업 분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EU 센터는 삼성 경제 연구소와 지난 1월 7일 EU 센터 공동운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컨퍼런스 개최 협력과 공동 연구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삼성 경제 연구원 책자를 구독하는 1만 명 이상의 독자를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삼성이 구축한 사회 경제 인프라를 통해 EU 센터를 홍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협약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EU 센터는 유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지난 5월 15일 유럽 유학 및 장학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고상두 소장은 “EU 센터가 주도로 학생들에게 여름계절학기는 물론 항공료와 체류비용까지 지원하는 EU 인턴십을 제공할 생각이며, EU에 속한 작은 국가들에까지 연세인들의 활발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EU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 김정현 기자

이윤호 前지식경제부 장관('67) 강연

“온실가스를 지금과 같은 속도로 내뿜으면
결국 지구는 인류가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전환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강연중인 이윤호 장관('67)

지난 4월 7일 연세대학교 백양관 강당에서 ‘녹색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이란 주제

로 이윤호 지식

경제부 장관('67)의 강연이 열렸다. 연세대학교 리더십 센터 주최로 열린 이날 강연의 열기는 대단했다. 백양관 강당이 학생들로 발딛을 틈이 없었다. 이 장관은 “이렇게 좋은 날씨에 모교에서 강의를 하는 나는 운이 참 좋다.”며 첫 운을 떼었다.

이 장관은 지식경제부를 ‘기업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며,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미래형 부서’라고 간단히 소개한 후 “그린레이스(Green race)가 벌써 시작됐다”며 녹색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그는 “녹색성장이란 녹색 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산업 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까지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국가 발전 전략으로, 여기에는 우리의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 현황 및 신성장동력 필요성의 인식이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가에서 이러한 저탄소·녹색성장을 정책으로 책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임을 언급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녹색성장에 있

어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에너지원으로는 무연탄과 소량의 동해가스전이 있지만 실제 에너지 사용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한다”며 “지난해 처럼 원자재 값이 급등할 경우 국내 경제가 힘들어지므로 에너지를 확보하고 우수한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와 관련한 지식경제부의 역할로 그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그린 에너지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의 녹색 혁신’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2013년까지 백열전구를 LED로 전환하는 등 세계 3대 LED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원자력 에너지를 들며, 원자력 기술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를 통한 국산 자립화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끝으로 이 장관은 학교 선배이자 동시에 인생길을 먼저 걷고 있는 사람으로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열정을 가질 것과 시대의 변화를 읽을 것, 창의적인 인재가 될 것, 그리고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역량을 키워야 함’을 강조하며 연

세인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 이윤호 동문은 2009년 9월에 지식경제부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11월에 주 러시아 대사로 내정되었다.

💡 / 김윤희 기자

와세연&정치연구회 합동세미나



합동세미나에서 조별 토론을 하고 있다

5월 13일 연회관 012-1호에서 “동북아시아 정세를 중심으로 본 남북관계”란 주제로 와세연과 정치연구회의 합동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합동세미나는 향락적 문화로 점점 대학축제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 대동제를 맞아 정치외교학과와 3대 단체인 연정기자단, 와세연 그리고 정치연구회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국제정세에 대해 토론을 가진 뜻 깊은 시간이었다.

와세연 회장 전우철('08) 학우의 발제로 시작된 이번 합동세미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전우철 학우는 이번 4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동북아시아 정세를 중심으로 했을 때 북한의 고립을 기준으로

두 가지 가정을 전제로 두었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는 북한이 고립되었다는 첫 번째 가정의 경우,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재치 있는 비유를 들며 대한민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의 강경 노선에서 물러나 북한의 경청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은 고립되지 않았다는 두 번째 가정의 경우, 남한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히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기 위하여 벨기에와 같은 중진국 외교를 통해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결국 대북강경책은 남한에 유리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중진국적 외교 수행 및 유화정책을 통한 대북정책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전우철 학우가 발제를 마친 후 정연희와 와세연 회원들의 코멘트가 빗발치듯 이어졌다. 그 중 정연희의 윤주진('05) 학우는 “북한도 고양이를 물고 난 후 쥐의 운명에 대해 직감하고 있다. 북한의 남침 가능성은 미미하며, 햇볕정책 기간 중 북한의 침묵은 이라크에 이어 부시의 다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하며 남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대북 강경노선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코멘트에 이어 합동세미나의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두 개의 토론조로 나누어 더욱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조별 토론에서는 주로 햇볕정책을 비롯한 유화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정연희 회장 김성주('04) 학우는 대북 유화책의 실패 예시로 식량원조의 대부분이 주민이 아닌 군대로 간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외교라는 행위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1차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강정민('07)학우는 유화책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식량지원은 곤란하며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처

럼 기술이전을 통해 장기적이며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은('06) 학우도 유화정책은 무조건적 퍼주기가 아니며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하여 북한에 온건파를 키우고 북한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햇볕정책이 이용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 밖에도 유화정책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사람과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고루 나왔다.

정연회 활동을 하는 동시에 와세연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오수진('06)학우는 “대동제 맞이, 첫 와세연-정연회간 교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합동세미나의 구체적인 측면보다는 행사개최의 ‘의미’와 ‘가치’에 더 주목하고 싶다. 어느새 인가 식상해져 버린 ‘대동제’라는 축제기간에 먹고 마시며 단순히 즐기는 차원에서 벗어나, 이 행사가 정치외교학과 내 단체간의 교류를 도모하는 첫 시도로서 앞으로 더 발전된 내용으로 이어지면 각 단체에게 뿐만 아니라 과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번 와세연과 정연회의 합동세미나는 첫 교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일이었다. 또한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에 초점을 맞추어 다각도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열정을 볼 수 있었다. 와세연과 정연회 회원들 모두 처음 있는 합동 세미나였지만 많은 준비를 통해 정치학도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세미나 당일의 대동제와 겹쳐 참석률이 기대에 못 미쳤고, 미처 발언할 기회가 없었던 부원들이 적극적인 태도로 발

언에 임했다면 더욱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번 합동세미나는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정치외교학과 내 단체들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연정’ 공동체가 상호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최지수 기자

2009년을 <청연>과 함께



2009 정외과 가을학기 개강파티 개최

지난 9월 9일 늦은 6시 연희관 106호에서 2009년 연정 가을학기 개강파티 ‘Blue Party’가 열렸다. ‘Blue Party’는 46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청연>이 기획, 진행했다. <청연>은 이전의 개강총회와 다르게 ‘Blue Party’를 스탠딩파티로 진행했다. 넓은 공간을 위해 행정대학원 최고위 정책과정 강의실을 빌려, 의자를 치우고, 책상을 재배치했다. 파란 풍선을 천장에 띄워 ‘Blue Party’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학과장 최연식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Blue Party'가 시작됐다. 이어 이연호 교수, 김상준 교수, 최종건 교수, 배종윤 교수가 차례로 학생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최연식 교수는 “내가 학부생이었던 시절에는 스탠딩파티로 개강총회를 여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다”며 새로운 형식을 시도한 <청연> 집행부를 격려했다. 김상준 교수는 “연정에 들어온 것은 최고의 선택”이라며 학생들을 북돋웠다. 이에 학생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교수진의 인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행사가 이어졌다. 사회를 맡은 <청연> 집행부장 허승규 학우가 학과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마친 후, 학생회장 오정환 학우가 학생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정치연구회 회장 김영건('05)학우, 와세연 회장 전우철('08)학우, 연정기자단 김근우('04)학우가 각자의 동아리를 소개했다. 개강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서로 인사를 나눴고, 학과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청연 집행부 전우철('08)학우가 준비해온 음악을 틀자 파티는 무르익었고, 학생들은 <청연>이 준비한 퀴즈를 풀고 경품 추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 사회를 맡았던 <청연> 집행부장 허승규 학우('07)는 이번 행사가 무난하게 진행됐지만,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학과 운영에 관해 논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Blue Party'에 참석한 학생은 대부분 1,2학년이었다. <청연> 집행부장 허승규 학우는 “더 많은 수의, 다양한 학번의 학생들이 참여했다면 학과운영, 연정수련회 등 학과 행사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기획한 학생회에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Blue Party'에 참석한 학생들은 대부분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시도된 스탠딩파티 형식이 자칫 딱딱하게 흐를 수 있는 개강총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줬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서지수('07)학우는 'Blue Party'가 기존의 개강총회처럼 무겁거나 딱딱하지 않았다”며 계열생과 타과생들도 참석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현사라('09)학우는 개강파티가 분위기 있어 좋았고, 중간부터 참석했지만 모두가 편안하게 맞아주어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번 개강파티는 2009년 2학기를 알리는 연정의 첫 행사였다. 행사에 아쉬움을 표현했던 집행부장 허승규 학우는 인터뷰 말미에 “앞으로 열릴 개강총회는 연정수련회처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인연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의 바람처럼, 연정개강총회가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면서 학과 운영도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

 / 홍이슬 기자

제 46대 학부 학생회 <청연>을 돌아보다

2008년 11월 말에 치러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제46대 학생회 선거에서 단독 출마했던 <청연> 선본이 찬반 투표를 거쳐 당선됐다. 당선 후 1년 동안 정의과 학생회를 이끌었던 학생회 <청연>은 이제 마무리 과정에 있다. 정치외교학과 학부를 대표했던 <청연>의 공약 이행을 검토하고 <청연>의 활동을 점검함으로써 제46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로서 <청연>의 활동을 돌아보고자 한다.

“공동체, 문화, 참여” 3가지 테마로 <청연> 출발

출마할 당시 <청연>선본은 공동체, 문화, 참여의 세 가지 테마에 맞게 공약을 내세웠다.

먼저 공동체 부문에서 <청연>선본은 ‘멘토-멘티 사업 추진’, ‘과-반 협력 위원회 개설’, ‘학생회와 학생들의 소통의 장 형성’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오정환 학생회장(’07)은 당선 직후 연정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학생회가 추진했던 사업 중 호응이 좋았던 ‘연정 교수님을 만나다’를 계속 추진하고, 연정의 밤을 비롯한 과 행사에 많은 학부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우리 과의 구성원간 소통을 증진해서 연정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였다.

문화 테마와 관련해서는 ‘테마 MT 및 테마 데이 추진’, ‘연정미니콘서트’, ‘자치단체 및 소모임 지원, 협의체 설립’ 등을 세부 공약으로 내걸었다.

참여 부문에서는 ‘연대활동 MT 추진’, ‘타 학교 정치외교학과와의 교류를 통한 문제의식 공유’, ‘학내 문제에 대한 교내 다른 학생 공동체와 협력’,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민주적 참여지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3개 테마 관련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청연> 학생회

그렇다면 <청연>은 1년 간 공약을 시행했을까. 세 가지 테마별로 공약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공동체” 부문

‘멘토-멘티 사업 추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학생회는 학과장 최연식 교수와 함께 동문회장과 총무를 찾아가 사업제의를 했다. <청연>은 11월 25일 연정의 밤 행사에서 정계, 학계, 언론, 공직, 기업의 다섯 분야에 맞게 학생들과 동문들이 만나는 장(場)을 만들었다.

2010년부터 신입생이 학부가 아닌 학과로 선발될 예정이라 기존 학부체제와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필요했다. ‘과-반 협력위원회 개설’과 관련, <청연>은 2009년 1월 사회과학대 3반과 6반과의 정외과의 연계가 확정된 이후부터 행사마다 각 단위 대표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청연>은 제45대 학생회가 추진했던 ‘연정 교수님을 만나다’ 행사를 이어가기 위해 3월 30일 체화당에서 진영재 교수님과의 만남을 실시했다. 그러나 관련 행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문화” 부문

‘테마 MT 및 테마 DAY 추진’과 관련, <청연>은 4월 3일 연정 테마 MT를 진행했다. 그러나 기존의 MT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본 취지였던 ‘테마’라는 부분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학생회장 오정환 학우는 밝혔다.

‘연정 미니 콘서트’의 경우 2학기에 예정되었던 연정수련회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신종 플루의 확산에 따라서 연정수련회가 취소됨으로써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오정환 학우는 “연정수련회가 취소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었다”며 “대안적 형태라도 화합을 위한 행사를 추

진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청연〉은 ‘자치 단체 및 소모임 지원, 협의체 설립’ 공약과 관련해 등산, 봉사, 크리스천, 축구, 독서, 사진의 6개 분야 소모임을 개설했다. 우리 과에 편입한 한 학우(’01)는 “그동안 학과 생활을 하면서 정외과 학우들과 교류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개설된 소모임을 통해서 졸업하기 전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우들과 깊은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외과 09학번 부기장 김가나 학우(’09)는 “이번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의 사업 중 가장 큰 성과가 소모임의 활성화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학생회장 오정환 학우는 “소모임이 개설되기는 했지만 많은 연정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모든 소모임이 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비록 모든 소모임이 고르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분야의 소모임을 개설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정의 공동체 의식 고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참여” 부문

〈청연〉은 1학기에 농촌 연대활동을 다녀옴으로써 ‘연대 활동 MT 추진’ 공약을 이행했다.

‘학내 문제에 대한 교내 다른 학생 공동체와 협력’ 공약은 연정인 및 사립인(사회과학대 학생들을 지칭)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2009 사회대 교육 요구안’을 지지하고, 6월 1일에 진행된 ‘경청’을 통해서 ‘6·3 사회대 총회’를 지지함으로써 공약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대 요구안 지지 표명과 사회대 총회 참가 외에는 활동이 미미하였다.

이밖에 공약으로 제시했던 ‘타 학교 정외과와의 교류를 통한 문제의식 공유’를 위해 2학기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의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6월에 연정 커뮤니티에 게시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한 민주적 참여 지향’ 공약의 경우, 올 한 해 크고 작은 사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연〉학생회는 크게 참여하지 않았다.

‘연정수련회’ 최소로 2학기 학생회 활동이 미진했던 점이 아쉬워

〈청연〉은 ‘사회 참여’에 관한 몇몇 공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약을 이행했다. 특히 연정 공동체를 고취하기 위한 ‘소모임 개설’, ‘과-반 협력 위원회’ 등의 공약 이행이 두드러졌다.

이밖에도 기존의 딱딱한 개강총회에서 벗어난 2학기 개강파티 “Blue Party” 등을 개최하는 등, 〈청연〉은 올해 우리 과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좋은 프로그램에 비해 우리 과 학생들의 참여가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과 학생회의 고질적 문제인 ‘참여율 저조’ 문제는 다음 학생회도 고민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또한 2학기 가장 큰 행사인 ‘연정수련회’가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취소됨에 따라 〈청연〉이 새로운 시도를 할 기회가 줄어들었다. 집행부원 전우철(’08)학우는 “연정수련회 취소에 따른 대안 제시가 없었고, 〈청연〉의 2학기 활동 역시 저조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소회했다.

학과제로 바뀌는 2010년, 새롭게 구성될 학생회의 역할이 중요

〈청연〉 학생회장 오정환 학우는 “2010년은 학부제가 학과제로 전환되는 첫 해인 만큼 다음 47대 학생회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과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선거를 거쳐 새롭게 구성될 제47대 학생회는 10학번 신입생을 ‘사회과학대학’이 아닌 ‘정외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학부제 하에서 운영된 지금까지의 학생회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제47대 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입후보자 마감시한이었던 11월 13일 저녁 6시 30분까지 정외과 학생회 입후보자는 전혀 없었다. 현재 선거운동이 한창인 총학생회장 선거에 6개 선본이 출마하여 열띤 선거전을 벌이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다.

제 46대 정외과 학생회장 선거 역시 현 학생회장인 〈청연〉선본이 단독으로 출마하여 선거마감시한까지 51.18%의 저조한 투표율로 당선됐다. 제 46대 선거에 이어 제47대 선거의 학생회장 입후보자 불출마는 정외과 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저조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비록 1차 공고에는 학생회장 입후보자가 없었지만, 2010년이 학과제로 전환되는 첫 해인만큼 새롭게 구성될 제 47대 학생회는 신입생을 비롯한 모든 연정인들을 아우르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

💡 / 김현구 기자

대학원 학생회 새로 선출되다 “함께해요, 연정♡”



신현석 대학원 학생회장

9월 6일 제 47대 대학원 학생회 선거에서 신현석 원우(’05, 석사2학기)가 당선됐다. 총회 당일 한 원우의 추천을 받아 투표를 통해 즉각 당선된 것이다. 학생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중반을 훌쩍 지난 지금, 학생회장 신현석 원우는 연정대학원이 “함께”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며 웃음을 지었다.

다음은 47대 학생회장 신현석 원우와의 일문일답.

▶ 학생회장 선거 출마 계기는?

▶▶ 총회당일 그냥 제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우들은 대학원의 특성상 연구와 학업활동으로 빠듯한 생활을 보냅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와 학업이 대학원의 최우선 순위이지만, 여느 공동체처럼 원우들에게도 서로를 아우르는 단합 활동 또한 반드시 필요한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 이들을 아우르는 역할을 누군가는 담당해야했고 저는 그 역할을 감히 스스로 담당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와세연과 정치연

구회에 참여하는 등 공동체 활동에 본래 관심이 많았고 무엇보다 본과인 연정인 출신이라 연정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각별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한 친구가 저를 학생회장 후보로 추천해주었고 우연한 기회로 당선 됐습니다.

▶ 정치학과 대학원 학생회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일은?

▶▶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은 국내외 최고의 교수님들과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외부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중국, 몽고와 일본 등과 같은 외국에서 온 학생이 오랫동안 꾸준히 있어왔고 외교관을 비롯한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 원우 간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 서로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큼니다. 때문에 가족과 같이 친밀한 분위기속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9월 초, 6명에서 7명으로 구성된 테니스 소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4명에서 출발해 점점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국제정치 스터디 그룹도 결성했습니다. 대학원 내 이런 소모임을 적극 활용해 단순히 각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연정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일신일신우일신’(日新日新又日新)하겠습니다.

💡 / 유혜진 기자

“학부생과 동문이 함께 한 연정의 밤”

11월 25일 동문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7시부터 ‘연정의 밤’ 행사가 있었다. 이번 ‘연정의 밤’은 특별히 동문-학부생 멘토링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전년도 연정의 밤 보다 많은 연정인이 참석했다. 이만섭(‘50) 전 국회의장과 한승수(‘55)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한 동문들이 서로의 안부를 교환하며 추억에 젖는 모습이었다.

개회인사와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19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별세하신 김명회(‘46) 전 연세대 정법대학장(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및 정법대학장을 지냈으며, 제9대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장, 청주대학교 초대 총장, 대한유도회 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명예회장을 역임했다)을 기리는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이번 행사를 마련한 최연식(‘85) 정치외교학과장은 새로 단장한 연희관의 모습과 최근 학과 사업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개회 연설은 변재일(‘67) 민주당 국회의원 동문이 맡아, “연정의 밤 행사가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30, 40, 50 대 동문들이 부담 없이 참여 할 수 있는 젊은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부 시작에 앞서 이어진 식사 시간에는 학번·년대 별로 정리된 테이블에서 자유롭게 이동해 미처 안부를 교환하지 못한 동문들이 서로의 명함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재회의 시간을 보냈다. 50년대 학번부터 현재 1학년인 09학번까지 모두 참석한 이번 행사를 보며, 신동식(‘58) 한국여성언론인연합 대표는 “우리 때는 정의과에 여학생이 통

틀어서 4명밖에 없었다”며 여학생들이 남학생과 비슷한 비율로 입학하고 있는 정외과의 변화가 무척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김희수('92)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학부생 멘티와 동문 멘토 간의 대화시간이 마련되었다. 언론, 기업, 공직, 법률, 정계 분야로 세분화된 학부생 멘티들은 평소 관심이 있던 동문들과 자리를 함께해 현장에 있는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언론 분야를 지원했던 염미경('06)학우는 “밖에서는 만나 뵈기도 어려운 위치에 계신 분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명함을 건네며 따뜻하게 조언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며 연정인임을 자랑스러워했다. 기업분야의 멘토로 학생들과 자리를 함께 했던 안성준('82)동문은 “학생들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났다. 이 전과 비교해 어려워진 취업현실로 인해 고생하는 학생

들을 보니 현재 경제계에 있는 선배로서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하지만 정외과 후배들은 잘 해나가리라 믿는다”며 학부생들을 격려했다.

2시간 반에 걸쳐 진행된 ‘연정의 밤’은 김희수 아나운서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제창한 ‘아카라카’로 막을 내렸다. 기존의 연정의 밤과 달리 이번 연정의 밤은 ‘멘토-멘티’ 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학부, 대학원, 동문이 ‘연정’이라는 든든한 끈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앞서 길을 걸어간 선배가 후배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후배가 선배를 든든히 지지해주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정외과의 전통이 ‘연정의 밤’을 통해서 계속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 기예진 기자

동문선배님을 멘토로 모십니다



정치외교학과 멘토링 프로그램 <연정>

63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연정공동체를 한 단계 더 높이 이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첫째, 선배의 입장에서 <연정>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후배들에게 알려주어 후배들이 한국을 이끌어갈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후원하는 것이며, 둘째, 후배의 입장에서 선배들이 이끌어온 <연정>의 역사를 계승하고 미래의 <연정>을 빛낼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주인 의식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실제 활동

- 멘토링 전담팀을 중심으로 정치외교학과 동창회와 정치외교학과 교수진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어 동문과 재학생을 연결.
- 직능별 졸업생 멘토 그룹을 통해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정외과 졸업생들 간의 활발한 소통을 지원.
- 재학생의 관심 분야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배들의 생생한 조언을 전달해 미래 진로 설계를 도움.

언론
기업 공직
정계 법률

동문
(직능별 졸업생 멘토)

참수리
멘토링
그룹
1,2학년

독수리
멘토링
그룹
3,4학년

재학생

졸업생 멘토를 자원하실 선배님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E-mail : politics@yonsei.ac.kr 정치외교학과 사무실 : 02-2123-2940 FAX : 02-393-7642

“밝고 바람직한 삶, 연정에서 피어나길”

송영옥 동문('00) 아버지 <아름다운 나눔 대표> 송만순씨 인터뷰



송영옥 동문 부친 송만순씨

2009년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박기천 동문('55)와 55학번 동기회와 송해경 동문('85)으로부터 학과발전기금을 받았다. 그리고 7월 16일부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사회복지 법인 <아름다운 나눔>으로부터 매년 소정의 발전기금을 받기로 하였다. 세계 금융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교를 위해 기부한 동문들의 이야기는 연정 구성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 중에서 고(故) 송영옥('00)동문의 부친 송만순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아름다운 나눔> 기금의 의미는 각별하다.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막내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2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막내딸이 기억되기를 바라며 연정 발전 기금에 참여한 송만순씨를 인터뷰했다.

가족을 잃고 사회 복지 재단을 설립하다

문정동 자택에서 만난 송만순씨는 여느 아버지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드문드문 하얗게 세기 시작한 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송만순씨는 2002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일했고 2005년까지 컨테이너부두 관리공단에서 근무했다. 가족을 위해 건실하게 살아 온 아버지였다.

2006년 7월 16일, 그의 지난날은 모두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중국 여행을 떠났던 가족에게 교통사고가 났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다행히 첫째 딸은 살았지만 그는 아내, 장남(송광빈), 차녀(송영옥)를 잃어버렸다. “그때부터 마음고생으로, 빈민과 고뇌에 가득 찬 날이었지”

그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 나올 수 없었다. 오랜 시간 빈민한 끝에, 그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연스럽게 떠오른 것이 사회복지였다. 생전에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았던 부인의 영

향이였다. 그의 아내는 사고 전 케어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고, 독거노인에게 자원봉사도 했었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같이 사회봉사를 하자고 했었는데, 순간 그 말이 기억이 났어.”

그는 여행사에서 나온 위로금, 보험금과 직장 동료들과 모은 기금을 더해 〈아름다운 나눔〉을 만들었다.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관계 기관의 허가를 거쳐야 하기에 법인으로 만드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일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는 〈아름다운 나눔〉이 아직까지 국가에 등록된 사회 복지 재단은 아니라고 했다. 사회 복지 재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복지 재단으로서의 목표와 이전의 실적에 대한 인정, 구성원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송만순씨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아름다운 나눔〉을 국가 등록 사회복지 재단으로 키우고 싶다고 밝혔다.

아들의 꿈을 대신 실현하고, 연정발전기금을 설립하다

〈아름다운 나눔〉은 아직까지는 특정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필요한 곳을 찾아 손닿는 대로 도와주고 있다. 처음 시작은 중계동의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었다. 중계동 노인 복지관에서 추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을 찾아갔다. 매달 밑반찬을 지원하고, 생활비를 지원했다. 다음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벤엘의 집’ 후원 사업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의정부 가출 청소년 보호 센터인 ‘십대지기’ 후원 사업을 하였다.

사회복지 재단 운영을 하던 중 그는 2008년 우연히 아들 고(故) 송광빈씨의 친구 오동권씨를 만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으로 파라과이에서 근무했던 오동권씨는 한국에 돌아와 고 송광빈씨와 파라과이의 교육여건을 돕는 계획을 했었다. 그러나 송광빈씨의 죽음으로 이루지

못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송만순씨는 아들의 계획을 이어줄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지원 해준 컴퓨터들을 도난당해 중단된 에벤에셀 학교의 컴퓨터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20여대의 컴퓨터를 새로 준비하고, 유지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교육여건 개선을 꿈꿨던 아들의 뜻을 실천하고 있다. 에벤에셀 학교 컴퓨터 교실 앞에는 고 송광빈씨와 오동권씨의 우정이 새겨진 동판이 걸려있다.

아들의 뜻을 잇고 나서 송만순씨는 딸을 위해서도 뭔가 기억될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딸과 가장 친했던 친구 손혜민(29,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박사과정)양과 논의하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돕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학과장인 최연식 교수와 상의한 끝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발전 기금을 쌓기로 하였다. 2009년 7월 16일부터 시작하여, 〈아름다운 재단〉은 고 송영옥 동문의 기일인 매년 7월 16일 500만원씩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발전기금을 기부하고 있다.

송부옥과 끈기가 강했던 송영옥 동문

“송부옥과 끈기가 강했다” 공무원 아버지 밑에서 고(故) 송영옥 동문(00)은 딱히 사교육의 도움을 많이 받을 형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아 고 송영옥 동문은 한 살 위였던 고 송광빈씨가 풀지 않은 문제집을 가져다가 몇 번이고 풀었다. 서울외고를 거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수시로 합격했던 고 송영옥 동문은 영어를 매우 잘해 수능과 토익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실력을 보였다.

고 송영옥 동문은 정치외교학과 졸업 이후 동부재단에 취직을 했지만 계속 진로를 고민했다. 교사라는 다른 진로를 위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고

싫어 했다. 아버지 송만순씨는 딸이 회사를 다니고, 결혼을 하는 일반적인 길을 원했다. 그러나 딸은 반대하는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 회사를 그만두고 편집 준비를 시작했다. 그 때가 2006년 7월이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것을 하게 되었다고 좋아 했었지” 아버지는 딸의 다하지 못한 삶을 안타까워했다.

밝음과 바람직함, 단순한 진리에 대한 희망

마지막으로 수혜를 받을 현재와 미래의 연정에 대한 당부의 한마디를 부탁하자 송만순씨는 웃으며 말했다.

“바람직한, 그리고 밝은 사람이 되면 된다. 사실 일하는 것도 친구를 사귀는 것도, 사회생활도, 해 보면 단순하다. 밝고 바람직한 것 그 이상이 필요하지는 않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

죽은 자식을 곡하며(哭子)

허난설헌

지난 해는 사랑하는 딸을 잃고
올해에는 사랑하는 아들 잃었네.
슬프고 슬픈 광릉 땅이여,
두 무덤이 마주 보고 섰구나.
황철나무에는 으스스 바람이 일고,
도깨비불은 숲속에서 번쩍이네.
지전으로 너의 혼을 부르고,
너희 무덤에 술잔을 붓네.
아아, 너희들 남매의 혼은
밤마다 정답게 어울려 놀으리.
비록 뱃속에 아기가 있다 한들,
어찌 그것이 자라기를 바라리.

황대노래를 부질없이 부르며,
피눈물로 울다가 목이 메이네.

죽음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 상관 없이 다 같이 슬픈 법이다. 하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에 빗낼 수 있는 죽음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 슬픔이 다른 슬픔들과는 달리 시간이 해결해 주는 슬픔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나 다 다가오는 죽음이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빨리, 예상도 못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적어도 부모의 기억 속에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남아 있게 된다. 허난설헌의 시가 사람들의 가슴을 아리게 하는 것은 그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떠나간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떠나간 자가 세상에 남기고 간 것이 없을수록 남은 사람들은 더 쉽게 잊을 것이다. 이십대 중반을 갓 넘긴 고 송영옥 동문은 남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하고 떠났다. 진로 고민을 마치지 못한 젊은 시기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늘로 간 막내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연정공 동체에 사랑의 씨앗을 나눴다. 그녀의 못다 핀 생은 연정에서 새롭게 피어날 것이다. “아직도 내 곁에 있는 것 같다”는 친구 손혜민씨의 말처럼, 아버지의 사랑으로 피어난 그녀는 영원히 연정과 함께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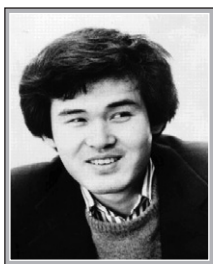


/이재원 기자

그의 절망에 시대는 울었다. 떠난 지 스무 해, 다시 읽어보는 기형도의 시

“

기형도 동문('79)의 지인들은 그의 생전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한다.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했던 사람.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 좋아했던 사람. 그러나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가만히 들어주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 누가 청하면 바지 주머니에 두 손 넣고 두 눈 꼭 감고 노래 부르기 좋아했던 사람.”



1989년 3월 7일 새벽 3시. 그는 종로의 한 심야극장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청소원은 영화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앉아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29살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였다. 친구와 가족들은 기형도 시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때까지 발표되지 않았었던 60여 편의 시를 발견했다. 바로 시인이 죽음의 순간에 몸에 지니고 있었던 푸른 노트에서... 그저 고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펴낸 첫 시집이자 유고시집인 『입 속의 검은 잎』이라는 이 시집은 세월을 넘어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다. 그의 추모 20주년

을 맞아 그가 남긴 작품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인생을 겪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작품으로 승화되어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기형도의 시는 영화, 소설, 연극, 노래 등 다양한 장르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단편 영화를 통해 초현실주의적인 터치를 인정받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질투는 나의 힘」은 기형도의 시에서 영감을 받았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 때 내 마음은 너무도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 밖에 없어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나의 생은 미친듯이 사랑을 찾아 헤메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질투는 나의 힘〉전문

기형도는 1960년 경기도 외곽의 웅진군에서 3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유년시절에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자 어머니와 형제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며 가난한 삶을 살게 되고, 이어진 갑작스러운 누이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의 시에서 볼 수 있는 비극적인 세계인식과 죽음의 이미지는 이러한 불행했던 가족사와 무관하지 않다.

기형도의 시에서는 ‘유년의 기억’이 가장 중심이 되는 모티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나타나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유년시절은 극도로 가난하고 고통스러웠기에 정겹고 따뜻한 기억이 그려지기 보다는 슬픈 목소리로 회상된다. 〈위험한 家系〉(1969)를 보면 그가 유년시절에 체험한 가난의 모습과 아픔이 상세히 드러나 있다.

어머니. 잠바 하나 사주세요. 스펀지마다 송송 구멍이 났어요. 그래도 올 겨울은 넘길 수 있을 게다. (중략)

선생님. 가정 방문은 가지 마세요. 저희 집은 너무 멀어요. 그래도 너는 반장인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요. 아버지 혼자, 낮에는요. 방과 후 긴 방죽을 따라 걸어오면서 나는 몇 번이나 책가방 속의 월말고사 상장을 생각했다. 독방에는 패랭이꽃이

무수히 피어 있었다. 모두 다 꽃씨들을 갖고 있다니. 작은 씨앗들이 어떻게 큰 꽃이 될까. 나는 풀밭에 꽃혀서 잠을 잤다. 그날 밤 늦게 작은누이가 돌아왔다. 아버지 좀 어떠시니. 누이의 몸에서 석유 냄새가 났다. 글썽, 자전거도 타지 않고 책가방을 든 채 백장을 돌리겠다는 말이나? 창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바람에 불려 몇 그루 미루나무가 거대한 빵처럼 부풀어오르는 게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날, 상장을 접어 개천에 종이배로 띄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위험한 家系〉 일부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 그 때문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이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극도의 가난함으로 인해 잠바 하나조차 살 여유가 없으며 누이는 돈을 벌기 위해 몸에서 석유 냄새가 나도록 공장에 다니고 화자 또한 생계를 돕기 위해 신문배달을 하려 한다. 미루나무가 빵으로 보이는 것은 가난 때문에 겪는 배고픔의 시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또 우등상장을 가족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대로 종이배로 접어서 띄워 보낸 것으로 보아 시인의 피폐해진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김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율목

-〈엄마 걱정〉 전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던 해인 1982년 기형도가 연세대 캠퍼스 내 윤동주 시비를 찾았다. 이 무렵 기형도는 시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문학과지성사)

이 시에서는 두 명의 화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한 명은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이고, 다른 한 명은 2연에서 유년을 회상하는 성인이 된 화자의 모습이다. 어두워져 비가 내리는데 시장에 열무 삼십 단을 팔러 간 엄마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어린 화자는 빈 방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타박타박 걷는 어머니의 힘든 발걸음에서 가난을, 빈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화자와 자신을 찬밥에 비유하는 것에서 외로운 정서를 읽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외로움은 텅 빈 빈방, 빈집 등의 시어를 통해 고독한 이미지로 시 전반에 드러난다.

몇 번의 겨울이 지나자 나는 외톨이가 되었다
그리고 졸업이었다, 대학을 떠나기가 두려웠다

-〈대학 시절〉 부분

시인의 고독한 감성은 어두운 시대 상황과 맞물려 청년시절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 시에 나타나는 외톨이 의식과 졸업 후 닥칠 상황에 불안함을 느끼는 정서는 유년시절의 감성과 이어져 있다. 이렇듯 가난에 대한 의식은 기형도의 시작에 중요한 동기 요인이 되며 그가 만들어 내는 시어와 이미지들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슬픔과 불행의 한 근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형도는 유년시절 무능한 아버지로 인해 가족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고, 가족의 흔들림은 그에게 ‘거리’를 헤매는 고통스러운 삶 속으로 스스로를 던져 놓는다. 기형도의 시들에서 유난히 ‘길’이라는 장소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시인 자신이 시집 제목을 『입속의 검은 잎』으로 확정하기 전에 『정거장에서의 충고』 혹은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 중에서 택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만큼 ‘길’은 그의 시작에 있어 중요한 소재이다.(조병준, 2003, 395쪽)



그는 어디로 갔을까/ 너희 흘러가버린 기쁨이여 / 한때 내 육체를 사용했던 이별이여/ 찾지말라, 나는 곧 무너질 것들만 그리워했다/ 이제 해가 지고 길 위의 기억은 흐려졌으니/ 공중엔 희고 둥근 자국만 뚜렷하다/ 물들은 소리없이 흐르다 굳고/ 어디선가 굶주린 구름들은 몰려왔다/ 나무들은 그리고 황폐한 내부를 숨기기 위해/ 크고 넓은 이파리들을 가득 피워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돌아갈 수조차 없이/ 이제는 너무 멀리 떠나 내려온 이길/ 구름들은 길을 터주지 않으면 곧 사라진다/ 눈을 감아도 보인다// 어둠 속에서 중얼거린다/ 나를 찾지 말라…… 무책임한 탄식들이여

/ 길 위에서 일생을 그르치고 있는 희망이여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 전문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는 제목에서부터 길이 매우 중요한 소재이며 시의 중심적인 공간임을 암시한다. 여기서의 길은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목적지도 없는 말 그대로의 길을 의미한다.

‘나’는 ‘돌아갈 수 없이 너무 멀리 떠나려 온 이 길’에서 깊은 고립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물, 구름, 나무 등의 자연물을 ‘소리 없이 흐르다 굳고’, ‘끓주리고’, ‘내부가 황폐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물, 구름, 나무는 ‘나’를 상징한다. 길 위에서 방향성을 상실한 ‘나’는 내면의 불안한 심리를 감추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더욱 굳어져 버리고, 크고 넓은 이파리를 가득 피워내는 것이다.

나를 끌고 다녔던 몇 개의 길을 나는 영원히 추방한다.

- 〈그 날〉 부분

밤 세시, 길 밖으로 모두 흘러간다 나는 금지된다

- 〈물 속의 사막〉 부분

그의 작품은 삶과 죽음이 혼재하는 공간이다. 그는 하얀색보다는 검은색이, 맑은 날보다는 안개로 덮인 날이 더 잘 어울리는 시인이다. 그는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어두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 그가 남기고 간 100여 편 정도의 짧은 시집 한 권과 함께 거짓말처럼 우리 곁을 떠난 기형도의 삶 자체가 하나의 시로 읽혀지게 된다. 그의 시 대부분은 ‘죽음’이 등장한다. 김현이 언급했듯이



"행주 기공 그레고리오 형도묘(幸州 奇公 그레고리오 亨度之墓)"라는 비문이 새겨진 기형도 시인의 묘지(안성 천주교 수원교구 공원묘지 소재)

‘극단적인 비극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김현 1989, 154쪽).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던 기형도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년시절에 겪었던 생활의 고통과 더불어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집요한 동경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력을 시에 고스란히 담아내었다. 그의 검은 시집을 읽는 독자들은 그가 왜 그토록 ‘죽음’에 집착했는지를 고민하며 함께 슬퍼한다.

1980년대가 낳은 시인 기형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시가 우리를 매혹시키는 요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미완의 미학, 요절시인으로서의 신비주의, 몽상적인 슬픔과 비극적 메시지, 낭만주의자로서의 면모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상처투성이의 시집을 남겨야 했던 시인 기형도의 삶은 어땠을까?

그는 직업적인 측면에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문학적 감성과 삶에 대한 치열한 고민은 처절하게 그의 손끝에서 몸부림친다. 우리는 그의 솔직한 목소리를 아무런 방해 없이 직접적으로 느낀다. 그의 떨리는 손끝에서 나오는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다.

기형도는 어느 날 갑자기 종로의 한 극장에서 죽었다. 그가 남긴 유일한 흔적인 단 한권의 시집과 너무도 짧은 시인으로서의 생애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신비스럽다. 영화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살다간 그의 짧고 굵은 생애가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단순히 요절시인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깊게 각인되기는 힘들다. 단지 젊은 시인의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그가 매력적인 것만은 아니다. 80년대를 함께 숨쉬고 홀로 가버린 청춘, 시인으로써 그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를 끊임없이 찾는 게 아닐까. 독특하고 재밌는, 그러나 무거운 시적 표현력, 냉철하고 예리한 관찰력, 그만의 개성, 시인으로써의 감각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현실에서의 기형도는 문학을 사랑하고 책을 좋아했으며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한다.(성석제 1994, 229쪽) 그의 시만 본다면 상당히 우울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의외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았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서서 새로운 시 쓰기에 대한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단지 일찍 죽었기 때문이라면 그 당시에 잠깐 집중과 관심이 쏠렸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계속된다는 사실은 결국 시 자체의 남다른 매력과 가치 때문이리라. 또한 그가 절망만을 노래했다고 하기엔 이 시인이 보여준 가능성에 거는 기대가 너무 컸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형도의 시에 애착을 갖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못한 시가 아닌 자신을 들여

다보는 시를 썼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몰입하도록 이끄는 힘 때문이다. 죽음과 슬픔, 어두움으로 가득한 그의 시가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형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의 시는 어렵지만 어렵지 않다. 낮설지만 낮설지 않다. 괴이하지만 괴이하지 않다. 이것이 기형도의 시다. 그의 시세계는 80년대의 초토 위에서 전 세대의 아픔을 끌어안으며 동시에 후 세대의 지평을 열면서 비로소 열린 세계이다.(이경호, 1994, 214쪽) 그 감동과 영향이 지속되는 한 기형도는 영원히 살아 있는 현재형의 시인이 될 것이다. 기자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치열한 고민을 시로 풀어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에게 시는 일종의 탈출구였다. '나는 기자이기보다는 훌륭한 시인이길 원한다' 고 말했던 그의 말은 그가 얼마나 시 창작에 열정을 쏟았는지를 알게 해준다.

이 시대의 마지막 낭만주의자로 꼽히는 기형도, 그는 조용히 숨 쉬고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떠났다. 하지만 그의 열정은 조용하지 않았다. 시대를 넘어 죽음의 순간을 넘어, 아직까지 그가 살아있는 것은 그의 시를 향한 열정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도움 받은 글

기형도, 『기형도 전집』, 문학과 지성사, 1999

김현, 『영원히 닫힌 빈방의 체형』,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 지성사, 1989

박연선, 「기형도 시 연구」,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8

성석제, 「기형도, 삶의 공간과 추억에 대한 경멸」,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기형도 추모문집』, 숲, 1994

이경호, 「기형도의 시세계 연구자료읽기」,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기형도 추모문집』, 숲, 1994,

조병춘, 「기형도의 시 연구」, 『새국어교육』 제 65호, 2003, 1

 / 정리 최원병 기자

연정, 교수님을 만나다

이번 Real Life Story 에서는 양승함 교수와 양교수의 부인인 현 간호대학 이정렬 교수를 함께 인터뷰했다. 양승함 교수와 이정렬 교수의 재미있는 연애 에피소드에서부터 양교수의 힘들었던 유학시절과 연정에 관한 그의 애정어린 이야기까지... 교수로서의 양교수와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양교수를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다.

○ 양승함 교수편



양승함 교수

1. 학창시절에 교수님은?

– 학창시절의 짙은 기억 하나.

시대상황과 대학시절 에피소드

내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은 대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에게 ‘교련’ 교육을 시키고, 2학년부터는 반 박정희, 반독재 데모가 일어나던 시대였다. 3학년 때인 1972년에 내장산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어 서울역 앞에서 친구들과 만났는데 그날 새벽, 유신이 선포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정치학도였던 우리들은 떠나는 기차를 앞에 두고 의견이 둘로 갈렸다. “시국이 이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야겠냐, 정치학도로서 이 시국에 참여해야하지 않겠냐”라는 의견과 “비상계엄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 번 뿐인 수학여

행인데 가자”라는 의견이 대립해 기차역에서 토론이 벌어졌고 결국 우리 중 1/3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 학교로 돌아갔다.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정치 시국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투철했다. 당시 데모를 준비하면서 시위성명서를 낼 때에는 교수님과 상의하여 작성할 정도로 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의식은 굉장히 컸다.

– 학창시절의 짙은 기억 둘.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만나다

“서동요”작전

1학년 때인 1970년 8월 10일, 지금의 부인인 이정렬 학우에게 첫 데이트 시도를 했고, 학교를 다니는 4년 내내 연애를 했다. 연애는 대학시절의 낭만이었다. 당시 나는 국제연합학생회에 속해있었는데, 당시 간호학과 학생이었던 그녀를 그곳에서 만났다. 국제연합학생회에서 봉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에서 주간지를 판매하여 최다 액수를 모금한 일도 그 당시 기억에 남는 추억이다. 하지만 일할 당시에는 서로 옆에만 있었을 뿐, 정면으로 얼굴을 보지도 못했었다. 그러다가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다방에 앉아 마주 본 그녀의 눈은 정말 반짝반짝 빛났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를 둘러싸고 당시 국제연합학생회에 있던 다른 학우들이 경쟁자였기 때문에 나는 이른바

“서동요”작전을 펼치게 되었다. 9월에 창경원으로 국제연합학생회에서 1학년 단합대회를 가게 되었다. 커플게임을 하려면 남녀 짝이 맞아야 하는데 국제연합학생회 내에 남자가 한명 부족해서 내 남동생이 대신 참석했다. 짝짓기 준비뽑기를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뽑게 되었지만, 내 동생은 마침 그녀를 뽑았다. 나는 내 짝과 보트타기를 빨리 끝내고 나와서 동생과 파트너 바꾸기만을 기다렸다. 그녀가 나오자 나는 “한 번 더 탈래?”라고 물었고, 그녀가 승낙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트타기 게임을 끝내기 전에 그녀와 함께 다시 보트를 탈 수 있었다. 나는 보트를 2번이나 탔으므로 우리가 보트를 타고 있는 동안 다른 학우들은 이미 다 타고 나와서 우리를 기다려야 했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공주인 선화공주를 얻기 위해 서동이 노래를 지어 온 나라에 소문을 냈던 것처럼 단합대회에서 나는 다른 동기들 앞에서 그녀와 단 둘이 보트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른 동기들에게 그녀는 “내 여자”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었다. 저녁노을 배경으로 나와 그녀가 서로 마주보는 모습을 내 동생이 찍어주었고, 당시 고려대학교 호영회(사진동호회) 회원이었던 내 동생덕분에 그 모습은 고대 표지에 실리게 되었다.

2. 교수님의 유학생생활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걷다

처음부터 러시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시공부를 하다가 나와는 맞지 않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만두었다. 1980년 나는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북한에 관하여 석사논문을 쓰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냉전사고가

중심이었고, 북한은 소련의 앞잡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나는 그렇다면 북한만이 아니라 북한을 사주하는 러시아를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 더 통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였다.

- 고생 끝에 낙이 오다

당시 국내에는 소련정치를 가르치는 곳이 없었다. 특히 연대는 고사하고 소련 관련학과는 외국어 대학교 노어노문학과정도였다. 소련 전문가도 드물었다. 당시 나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원에 입학하자마자 결혼을 했다. 소련이 국내에서 미개척 분야였기 때문에 미국에 가야만 소련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집사람도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기에 1980년에 유학길에 올랐다. 나는 워싱턴 대학 국제학대학원의 ‘소련 및 동구지역연구’를 선택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들어가려면 러시아어 2년 과정수료가 필수였다. 다행히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는 조건부로 입학하게 되었다. 원래 2년 과정인 러시아어 초급-고급과정을 대학원수업과 병행하느라 4년에 끝내게 되었고, 남들보다 석사기간이 2-3년 더 걸리게 되었다. 석사과정 후 박사과정은 정치학과로 전과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러 관계에 대해 공부하는 줄 알았으나, “소련의 권력승계 정치(부제-고르바초프의 케이스를 중심으로)”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아마 한-러 관계에 대해서만 공부했다면 지금의 자리에 나는 없었을 지도 모른다. 나는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겠다,’ ‘기존 연구 분야가 아닌 가장 중요한 추세를 건드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연구에 매진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소련을 연구 한다니까 수상한 눈초리로 많이 바라보았다. 1985년에 소

련에서 개혁개방이 이루어지자 그때는 또 중앙정보부에 갈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하지만 나는 학문의 길을 지켰다. 1988년 한국과 수교도 맺지 않은 소련이 서울올림픽에 출전하자 소련 붐이 일어났다. 그제야 사람들이 소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미개척분야를 연구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1990년 9월 30일 한-소 수교가 이루어지자 연세대학교 정외과에서 소련전문가를 구하려 했는데, 당시 나는 한-러 관계에 심취해있었다. 그런데 기존의 보수적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논문작성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그 바람에 논문심사기간과 연대 정외과의 교수 임용시기가 맞지 않았다. 논문을 끝내지 못했으므로 학위가 없는 상태에서 학위수여예정자로 우선 교수 임용에 지원했는데, 당시 적격자가 없어서 아무도 뽑히지 않았다. 12월 즈음에 정외과에서 교수 임용 경쟁상대와 나와의 비교를 위해 나에게 강의 제안을 했다.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강의를 하다가 1991년도 여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논문을 마무리했다. 1991년부터 강사로 강의를 하다가 1993년부터 교수로 임용되었다.

3. 연정과 함께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은?

- 연정수련회를 만들다.

사람은 살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자신이 어떤 집단에 일체감을 느낀다면 그 집단에 애정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정자체가 주는 전통이나 선배, 동문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특히 내가 학부를 다닐 때에는 정치가 대세였다. 과대표를 뽑을 때에도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졌고,

동기들간의 교우관계 스타일이 다른 과와는 확실히 달랐다.

그러나 유학을 다녀온 후, 학과 학생들은 내가 학부생일 때와는 달라져있었다. 공동체적 의식이 없어졌다. 각각의 학생이 특출하지만 집단적인 노력을 하는 데에는 무언가가 부족했다. 함께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기질이 약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과 연정인의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공동체 수련회를 시작했다. 굉장히 의욕적이었다. 학기 중 2-3달은 강의준비를 제외하고는 연정수련회 준비만으로도 바쁜 나날을 보냈다. “교수님이 안 오시면 그 아이들은 고아가 됩니다.”라는 말로 교수님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2박 3일 일정의 수련회로 동문과의 대화, 교수와의 대화를 진행하고 문화제, 학술제, 체육제로 구성하였다. 연정수련회에 불참하는 학생들에게는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정도로 참여를 독려하여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작은 마찰(?)이 있기도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학술제는 분야별로 학회를 준비해서 발표를 했고 교수진의 논평도 이어졌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동안 내 수업과 연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 수련회에서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즐겁게 뛰어놀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연정수련회에서 열창하고 있는 양승함교수

힘들었던 기억들이 모두 한 번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4. 정외과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열정 속에는 자신을 위한 열정도 있지만 남을 위한 열정도 필요하다. 연정인들은 당연히 리더십을 갖춰야하고, ‘훌륭하게 성공한다’는 것 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연대감(fellowship)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리드하고 싶다면 복종하는 것부터 배워라.”라고도 했다. 4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애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 다독(多讀)하고 자신만의 비전을 가져라.

나는 학생들에게 대학을 다니면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하고 싶다. 대학시절에 자기의 지적인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평생 고생한다. 스스로 자기개발에 대한 노력을 해야하며,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이상, 비전, 목표를 가지고 살라고 말하고 싶다. 대학시절은 시간을 가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기이므로 자기 개발에 투자하되, 토익, 토플만 공부하지 말고, 대신 원서를 읽었으면 한다. 지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동시에 영어를 공부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연정인들이 사회의 지도자, 봉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 이가현 · 이유정 기자

○ 배울 것이 많은 나의 남편, 양교수 간호대학 이정렬 교수 인터뷰



이정렬 간호대학교수

5월 12일 화요일 오후 5시경, 간호대학교의 이정렬교수를 찾아갔다. 이교수는 양승함 교수의 부인이다. 깔끔한 옷차림으로 반갑게 취재진을 맞은 이교수의 모습엔 여유가 있어 보였다. 다음은 이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양승함 교수와의 연애에피소드는 무엇이 있나요?

학창시절 연애를 할 때에도 이교수는 기분이 나쁘면 화장실 가는 척 하고선 그냥 기숙사로 돌아가버리곤 했다. 평소처럼 한번은 섭섭한 마음에 기숙사로 휙 돌아가 버렸는데 이를 알아챈 양교수는 택시를 타고 이교수가 내릴 버스 정류장 앞에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이교수가 내리자 양교수는 그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마음을 풀어주려 하였으나 이교수는 받아주지 않고 기숙사로 들어가버렸다. 그러자 양교수는 기숙사 앞, 이교수 방 창문 앞에 앉아 찬송가를 크게 불러댔다. 음치

인 양교수의 노랫소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교수의 친구들의 성화에 이교수는 기숙사에서 나와 양교수와 화해했다.

지금은 결혼을 하여 한 집에 살기에 이교수가 섭섭해도 집에 가버릴 수 없지만 대신, 시집 간 두 딸의 빈 방으로 도망간다.

-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의 양교수의 모습은 어떤가요?

평소에는 워낙 바쁜 양교수이기에 마음은 많이 써도 실제로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하지만 딸들이 축제를 하거나 공연할 때에는 꽃다발을 사서 축하해주러 갔다. 오히려 이교수는 출장 등으로 인해 못 가본 적이 종종 있지만 양교수는 한 번도 빠진 적 없을 만큼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

- 교수로서의 양교수는 어떤가요?

양교수는 교수로서 존경할 점이 많다. 양교수가 교수직을 맡은 이래로 심지어 학장을 맡고 있는 현재조차도 매학기 9학점 강의를 고집해 오고 있다. 매년 학부 6학점에 대학원 3학점을 맡아 강의했으며 특히 [정치학 입문]은 양교수가 특별히 애착을 갖는 과목이었다. 강의와 일이 많아 바쁨에도 불구하고 학생 발표나 페이퍼를 일일이 지도해 준다.

더 놀라운 것은 페이퍼와 시험 채점 시 절대 조교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교수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얼마나 배우고 어떻게 학습하였

는지 자신이 직접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번번히 성적 보고가 늦어지긴 하지만, 여행갈 때조차도 채점할 페이퍼와 시험지를 손에서 놓지 않는 양교수의 열정이 대단하다.

- 양교수에게 전하는 이교수의 한 마디.

이교수는 아침마다 스트레칭 운동을 한다. 그 전에 가족을 위해 항상 기도를 하는 데 그 시작은 언제나 양교수이다. 이교수가 매번 하는 그 기도처럼, 이교수는 양교수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러기 위해 항상 건강하기를 바란다.

 / 윤나영 기자



연정포커스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라보는 곳”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 졸업생 서명호, 김석원
(2009년 여름 석사 졸업) 인터뷰

논문은 학자를 규명한다. ‘대소 봉쇄전략’ 하면 조지 F. 케난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그가 학계와 대중을 향해 남긴 논문들 때문이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이하 우리과 대학원)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논문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에 대한 자기만의 문제의식에 논리와 체계를 입혀 사회 담론으로 발전시키는 사람들이다. 2009년 여름, 석사 과정을 마친 서명호, 김석원 동문에게 우리과 대학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공부하고 싶어 대학원 진학

공부를 향한 갈증이 두 동문을 우리과 대학원으로 이끌었다. 서명호 동문은 학부 마지막 학기에 진영재 교수의 유럽정치를 수강했다. 수업에 재미를 느낀 서 동문은 유럽정치를 더 공부하기 위해 우리과 대학원에 진학했다.

김석원 동문은 통일의 방향, 한국의 미래를 그려보고자 우리과 대학원에 진학했다. 큰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반드시 학문적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학과 대학원은 저의 문제의식, 학문적 관심을 구체화하는 곳이었습니다.”

연정 교수들의 학문적 깊이와 인간적 배려에 끌려

우리과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서명호 동문은 아일랜드에서 유학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학생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생활비, 등록비 등 현실적 여건도 빠듯했지만 무엇보다 공부에 관한 정신적 멘토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 동문은 고민 끝에 신명순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다. 서명호 동문의 처지를 알게 된 신명순 교수는 서 동문에게 한국에서 공부할 것을 제안했다. 신명순 교수의 관심과 배려에 서명호 동문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김석원 동문은 김명섭 교수의 학문적 ‘시선’에 끌려 우리과 대학원에 진학했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중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김명섭 교수의 균형적인 시선을 배우고자 김 동문은 군 복무를 마치고마자 우리과 대학원의 문을 두드렸다.

대학원에서는 무엇을 할까?

자신의 연구 분야를 고독하게 성찰

대학원은 공부하는 곳이다. 대학원생에게 학부 수업의 조교나 시험 감독은 대학원 생활의 극히 일부분이다. 대학원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하는데 보낸다. 자신의 연구 분야를 고독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김석원 동문은 대학원 생활은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다듬는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대학원생들은 시간의 대부분을 연구실에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연구하고 평가하는데 보낸다고 하였다.

서명호 동문은 학부에서는 기존의 문제의식을 배워서 시험으로 확인한다면, 대학원에서는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이를 대학원 동료, 지도교수와 공유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학부와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문제의식을 체계화 시킨 논문을 자신이 공부한 모교의 학문적 자산으로 남긴다는 자부심이 대학원을 다니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K21참여, 학술대회 개최와 행정업무로 세상과 소통하다

자신의 학문적 연구 외에도 대학원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한다. 김석원 동문은 우리 과 대학원 학술 부장을 3번이나 역임하면서 여러 번 학술대회를 개최했었다.

서명호 동문은 대학원에 다니면서 학과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또 다른 자국을 받았다고 했다. 학과의 크고 작은 행정 업무는 그에게 연세대학교의 미래를 그려볼 기회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장이었다. “재단중심이 아니라 학생·교직원·교수의 노력으로 발전하는 연세대학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라며 말하는 서명호 동문에게서 연구만이 아닌 '삶의 터전' 연정이 느껴졌다.

개인의 문제의식에 체계를 입혀 논문을 작성하다

졸업논문으로 서명호 동문은 유럽 좌·우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학계에 제시했다. 기존의 학계에서 나치당 혹은 파시스트 정당을 우파적 권위주의 정당으로 규명한 것과 달리 서 동문은 유럽 통합 과정에서 유럽 의회로 진출하여 성장하고 있

는 반 유럽 통합 정당, 지역주의 정당을 우파 정당으로 보았다.

서명호 동문은 유럽 정당들의 좌·우파에 대한 새로운 구분이 대한민국의 정당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치체계가 형태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를 띄고 있지만, 의원내각제적 성향을 보인다”며 앞으로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뒀을 때 다양한 국가와 이념들을 묶어내는 유럽의 정치 양상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탐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석원 동문은 김명섭 교수와 공동 집필한 「독립의 지정학: 대한제국(1897-1910) 이승만의 지정학적 인식」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청년기 지정학적 인식을 분석했고, 졸업논문 「이승만의 지정인식 연구」에서 이승만의 인식과 대한민국 정치의 시작점이 가진 한계와 의의를 규명했다.

김 동문은 기존의 ‘미국의 패권을 예언한 선지자’라는 식의 우파적 관점과 좌파의 ‘친미종속의 시작점, 한반도 분단의 원흉’이라는 무조건적 인식에 대한 개인적으로 의문을 품고 있었다. 이승만이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피면서 한반도의 미래 동조세력으로 미국을 선택하게 된 과정과 그 뒤의 문제의식을 주로 연구했다.

좌우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이승만의 정치인으로서의 내면적 인식의 경로를 추적하다보니 ‘대한민국 정치의 시작점’으로서의 이승만을 재발견했다. “좋은 삶든 ‘이승만’이라는 한국 정치의 시작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미래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김석원 동문은 앞으로 통일을 생각한다면 이승만 노선을 중심으로 삼되 외연을 넓혀서 1948년



연정포커스

에는 하지 못했던 좌와 우의 진정한 합작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명호 동문과 김석원 동문의 말에서 좌우의 막연한 구분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현대사의 재조명에 대한 의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상하는 학자적 포부가 느껴졌다.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관심, 관심분야에 대한 균형적 고민”



서명호 동문

단순히 나의 영달과 성공이 아닌 공동체에 대한 관심에서 정치학을 시작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석원 동문

서명호 동문은 “비판보다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다”라며, 연정 후배들이 조금 더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치외교학은 타인과 자신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김석원 동문은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복잡하다”며 단순히 옳고 그름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틀릴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하는 ‘겸손’과 ‘균형감각’을 부탁했다.

💡 / 이재원 기자

“새롭게 단장한 연희관” 성공적으로 마친 연희관 리모델링

지난 3월 첫째 주, 연희관 로비와 401호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 모습으로 거듭났다. 연희관 1층에는 여자 화장실도 새로 생겼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약 1년 6개월 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담쟁이 덩굴로 둘러싸여 외형적으로는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연희관은 그 내부를 살펴보면 매우 열악했었다. 학내 공간 사용률을 따져보면 연희관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원칙적인 구조 이외의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과학대가 항상 공간의 문제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낀 양승함 교수(사회과학대학장 겸 행정대학원장)는 연희관이라는 공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연희관 내부 개선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때부터 연희관을 효율적이고 긍지를 느끼는 명품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매칭 펀드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과학대에 마땅한 발전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양교수는 행정대학원 최고위 과정에서 발전기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다. 구성원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행정대학원 최고위 과정 사람들은 사회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기금을 내놓았다. 이렇게 해서 모인 돈이 2008년 2학기까지 대략 2억 5000만원이었다. 이에 더해 행정대학원 발전 골프대회를 통해 7000만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연희관 리모델링과 장학금에 쓰였다.

공사를 위한 기금 마련 후에는 절차적인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간 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위



리모델링된 연희관 402호



새롭게 바뀐 연희관 로비

원회의 승인 후 최종적으로 학교의 승인까지 받아 2009년 3월에 실제 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약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방학 중에 공사를 끝내려고 하였지만 학교로부터 승인을 받는 과정이 오래 걸려 예상보다 일주일정도 공사마감일이 늦춰졌다.

약 3억원의 비용이 들어간 이번 공사는 행정대학원과 사회과학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출연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대학은 그 어느 곳보다 진보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부터 섬세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곳에 스스로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점은 매일 연희관을 드나드는 사과대인으로서 그 의의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만한 주제이다.

참고로 학교에 일정액 이상을 기부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학교와 사회가 서로 돕는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연희관 로비 입구 양쪽의 검은 유리판을 사회과학대 ‘명예의 전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지난 3월 로비와 401호를 리모델링 한 이후에도 여름 방학동안 강의실까지 리모델링 해 연희관은 총 로비 1개와 9개 강의실이 새 단장을 하게 됐다. 각 강의실은 컨셉이 있게 꾸며졌는데 각 컨셉마다 사회과학대학의 특성과 긍지를 살리기 위해 세심하게 디자인되었다. 402호는 글로벌 리더십을 주제로 UN 본회의장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고, 1층의 강의실들은 정치를 주제로 국회 본회의장과 국무회의실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3층은 디지털과 모던을 컨셉으로, 2층에는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도록 고구려인의 기상을 느낄 수 있는 고구려 벽화로 꾸며졌다. 이 중에서도 401호는 1억 8천여만원을 들여 최고급 시설을 갖춘 고급 강의실로 거듭났는데 전 국회의장이만섭 동문('50)에게 헌정이 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이만섭홀 헌정식은 12월 7일에 열린다. 각고의 노력 끝에 마무리된 연희관 리모델링으로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의 학습 효율과 만족도는 높아졌다.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숨은 노력들이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것이다. 사회과학대학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보다 좋은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 / 염미경 기자



연정포커스

학부 교과과정, 이대로 괜찮은가

현(現)학부 교과과정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안

기존 학부제는 내년 2010년부터 다시 학과제로 전환된다. 연정기자단은 학부제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교과과정에 대해 점검하고, 앞으로 더 바람직한 교과과정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더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자 이번 기사를 기획했다.

과연 학생들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정외과 교과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연정기자단은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009년 11월 11일~12일 이틀 간 정치외교학과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학부 교과과정의 장단점 및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총 255명의 학생들이 응답했다. 소속별 인원을 살펴보면 정치외교학을 제1전공으로 하는 학생이 169명, 이중전공자 60명, 부전공 및 타전공 학생 26명이었다. 학년별 분포는 4학년 89명, 3학년 93명, 2학년 73명으로 집계됐다.

현재의 학부 교과과정

정치외교학과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과과정이 자리 잡은 것은 '00학년부터이다. 학부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학부대학 교양 학점을 37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정치외교학과 단일전공 기준으로 전공학점을 48학점 이수해야 한다(단 '00~02학번은 39학점).

정외과 교과과정에는 전공 기초나 전공 필수 과

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전공선택과목만 있다. 학생들은 전공선택 과목 중에서 자유롭게 48학점(3학점 기준 16과목)이상 이수하면 전공이수요건을 채우게 된다.

연세대학교 요람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정치외교학과의 교과목은 총 67개이다. 정치사상 및 방법론이 15과목이며 비교정치 18과목, 국제정치 및 외교정책 25과목, 한국정치 9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5년간 매학기 평균적으로 19과목이 개설되었다.

설문조사로 살펴본 현재 학부 교과과정의 문제점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부 교과과정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 총 255명 중 매우 불만족스럽다(8명)와 불만족스럽다(74명)가 전체 응답자수의 32퍼센트를 차지했고, 만족스럽다(54명)와 매우 만족스럽다(1명)가 전체 응답자수의 21퍼센트를 차지했다. 현행 교과과정에 대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 학생들은 현 교과과정에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일까.

1. 학생들은 67개의 많은 과목 수를 체감하지 못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현재 커리큘럼 상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과목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총 255명 중 103명의 학생들(40%)이 현행 교과과정의 개선사항으로 과목 종류의 다양화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미 정치외교학과 교과과정에는 67개의 교과목이 있다. 분명 적지 않은 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교과목 다양성에 대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개설 희망 과목을 물어보았다. 그런데 학생들의 답변 중에는 ‘국제기구론’, ‘한국정치사’, ‘문화와 정치’ 등 이미 현행 교과과정상에 있는 과목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만큼 교과과정에 있는 과목들조차도 제대로 개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학생들이 느끼는 다양성의 부족은 어디서 온 것일까?

서류상에만 있는 ‘수면과목’

다시 열리지 않는 ‘유형과목’

최근 5년간 개설되었던 과목들과 공식 교과과정상의 과목들을 비교해보았다. 분석 결과 최근 5년간(2005~2009) 한 번도 개설되지 않았던 과목이 16과목이었고, 단 한 번 개설된 과목이 11과목이었다.

4년의 정규과정에서, 휴학 등을 감안하면 5년에 2번 정도는 과목이 개설되어야 한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제공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現) 학부 교과과정에서 위에서 언급된 27개 과목들은 학생들에게 수강기회가 아예 없었거나, 그 당시에 재학하고 있었던 학생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수강기회가 있었던 셈이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식교과과정 과목들 중 3분의 1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었다.

또한 공식 교과과정 목록에는 없으나 개설되었던 과목들이 30개 있었지만, 20개의 과목들이 한 번 밖에 개설되지 않았다. 수강편람 검색결과 두 번 이상 열린 과목들을 정식 교과과정으로 포함시켜 계산해보아도 총 77개의 과목 중에 1번 이하로 개설되었던 과목을 제외하면 정식교과과정상 과목들은 50개로 감소한다.

한 학기에 18개 정도 과목이 개설되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과목끼리 시간표가 겹치면 선택

권이 줄어든다. 그리고 개설과목들 중에는 ‘비교정치론’, ‘국가안보와 정보’ 등 1년 주기로 계속 개설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교과과정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실제 응답자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교과과정의 다양성을 부족하다고 느꼈다. 103명의 학생 중 2학년 25명 3학년 38명, 4학년 41명으로 수가 늘었다.

2. 정치외교학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다

학교 요람에 따르면 정치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정치외교학과 교육목표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현행 교과과정의 문제점으로 ‘정치학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부족’ 하며 ‘선수과목과 심화과목 간에 연결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복수응답 390명 중 232명)

실제로 우리 과에서는 수강신청 시 전공과목 수강에 대한 특별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매학기 수강편람을 보고 마음에 드는 과목을 신청하여 그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매학기 그런 식으로 전공학점을 채운다.

문제는 내가 수강했던 과목들이 다른 과목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어떤 학문적 체계로 연결되는지는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엇인가 많이 배우기는 했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꿰 수 있는 논리는 아무런 도움없이 스스로 깨달아야한다.

현행 교과과정이 학생들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은 좋으나 정치학의 방법론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려면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제정치에 관



연정포커스

심이 많은 학생들은 국제관계론을 먼저 수강한 다음 특정 과목을 순서대로 이수하라고 지도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학과에서 전공수업에 관해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졸업을 위해서는 전공학점 4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 뿐이다.

3. 영어강의, 학생과 교수 모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국제화 흐름에 발맞추어 정치외교학과에서도 영어로 강의하는 수업이 꾸준히 개설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영어로 강의하는 수업은 매학기 3~4개 정도 꾸준히 개설되고 있으며 많게는 6개까지 개설된 적도 있다.

현재 학생들은 영어수업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현재 열리고 있는 영어강의 숫자에 대해 255명 중 126명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더 늘려야한다는 응답도 49명이 있었다.

그러나 영어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영어로 수업을 했을 경우 한국어로 수업을 했을 때보다 교수의 수업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영어수업도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과 내용 면에서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언어가 영어라는 점에서만 한국어수업과 다를 뿐이다.

언어 때문에 수업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수업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학생과 교수간에 영어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영어 강의를 개설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줄이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부 교과과정에 있어서 영어수업은 학생과 교수의 영어수준을 동시에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

1. 법학과목의 개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법과대학이 폐지됨에 따라 법학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과거의 정외과 교과과정에는 헌법, 국제법 등의 법학과목을 정치외교학과 전공과목으로 인정하였으나 지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법과 정치가 서로의 영역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탐구하는 '법과 정치'(Law and Politics)라는 과목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교과과정상 법학 자체에 대한 과목은 없어서 정치학과 법학의 괴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학생들도 설문조사를 통해 법학 과목의 개설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학생들에게 앞으로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과목을 주관식으로 물었다. 총 응답자 53명중 30명이 헌법, 국제법, 행정법 등 법학 과목 개설을 원했다.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인해 법과대학은 폐지된다. 그러므로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정치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헌법이나 국제법 등의 수업은 정치외교학과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가르칠 필요가 있다.

2. 전공 기초/필수 과목의 도입

전공 기초/필수 과목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137명이었고, '필요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118명이었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이유는 '정치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라는 것이었다. (137명 중 89명, 65%) 반면에 전공/기초 필수 과목 지정에 반대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관심 있는 과목

위주로 수강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에 만족 한다'는 것이었다. (118명 중 57명, 48%)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전공 기초/필수 과목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준 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과목들을 기초/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거나 과목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교과과정상 전공기초과목의 역할은 우리 과에서 개설하는 학부대학의 정치학 입문이 맡고 있다. 그러나 정치학 입문에서는 한 명의 교수가 정치학 전반에 대해서 모두 가르친다. 그러나 교수가 자신의 주전공이 아닌 분야까지 가르치는 것은 내용의 깊이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과 학생들에게는 정치학입문을 교양과정에서 빼고, 대신 전공기초과목으로 (1) 비교정치학 입문 (2) 국제정치학 입문 (3) 정치사상 입문이라는 과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체계를 바꾸면 학생들은 정치학입문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할 이론을 익히고 정치학의 기본개념을 확실히 익힐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학의 세부분야중에 어느 분야에 더 관심이 있는지 탐색의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 후 2학년부터는 자신의 관심분야에 따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하면 전공을 위한 체계적인 기초를 쌓을 수 있고, 후에 학생들의 선택권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3. 사회과학 글쓰기 수업의 도입

학생들의 의견 중 인상적이었던 것이 '논문작성법 수업을 새롭게 개설해달라'는 것이었다. 비슷한 의견으로는 '정치학 글쓰기', '사회과학 글쓰기' 등을 요구하는 응답이 있었다. 총 21명의 응답자가 있었다.

학생들은 입학 후 많은 보고서나 과제물의 형식으로 많은 글을 쓴다. 정치외교학과에서는 교수에 따라서 조별 과제물로 논문형식의 보고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현재 사회과학대학 공통과목으로 '사회과학자 양성 세미나'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 과목에서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자기가 쓰고 싶은 주제로 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을 쓰게 된다. 그러나 이 수업은 수강정원이 적어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데 한계가 있다. 학생들은 학부대학 기초과목인 '글쓰기' 과목을 제외하고는 글쓰기를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는 교과과정상 없는 것이다.

그리고 수업에서도 교수들이 보고서를 요구하지만, 보고서를 요구하기 전에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쓴 보고서가 잘 쓴 보고서인지 알려주는 교수는 거의 없다. 학부생들은 학술적인 주제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시켜 글을 쓰는 훈련이 부족하다.

앞으로의 교과과정에서는 사회과학적 글쓰기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사회과학적 사고훈련을 할 수 있게 해야 학생들의 실력도 늘어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학문의 세계에서 자신의 주장은 '논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표출되는 만큼, 학생들도 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교과과정에서는 논문작성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하여 원하는 학생들이 논문쓰기에 대해 교육받고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 기타 의견

이 외에도 학생들은 '다양한 정치사과목의 신설', '한국정치에 관한 과목 신설'을 요구했다. 실제로 교과과정에 정치사 과목은 근대국제정치사, 현대국제정치사, 한국과 동아시아국제관계사, 한



연정포커스

국정치사 4과목에 불과하다. 정치학에서 역사적 접근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역사 과목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정치 과목은 최근 5년간 한국정치론만 매해 2학기에 꾸준히 개설되었을 뿐, 교과과정 목록에 있는 ‘북한정치’, ‘한국의 시민사회운동’, ‘한국정치사’는 개설된 적이 없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한국의 정당정치’ 1회, ‘한국정치과정 세미나’ 1회, ‘한국의 정치경제’ 2회, ‘한국의 선거와 의회’ 2회 개설되었다. 또한 한국정치 관련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시민사회운동입문’, ‘시민사회운동의 이념과 실제’ 과목은 담당교수였던 이신행 교수 퇴임이후 개설이 중단되었다. 이처럼 학생들의 지적대로 한국정치를 다루는 과목은 매우 적은 상황이며, 앞으로 한국정치를 다루는 과목이 매학기 꾸준히 개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NGO 정치학’, ‘종교와

정치’ 등 학문간 교류가 이루어진 정치학을 배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다른 분야와 접목된 정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수의 충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수의 충원문제는 학과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과는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010년부터 학부제에서 다시 학과제로 체제가 전환된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지난 60여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는 만큼 연정도 그에 발맞추어 발전해야 하고, 교과과정도 개선되어야 한다. 학부제가 학과제로 전환되는 만큼 교과과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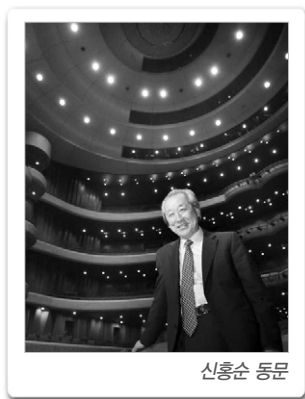
💡 / 김근우 기자



“예술은 신흥순한테 물어봐라”

유연하고 진취적인 ‘멋쟁이 신사’ 신흥순 동문(’59) 인터뷰

{ 첫 눈에도 멋스러웠다. ‘올 블랙(all black)’ 정장에 하이네크 셔츠, 구두까지 모두 블랙으로 갖춰 입은 센스가 대단했다. 멋쟁이라는 기자의 말에 그는 패션에 종사한 사람은 이 정도는 해야 한다며 웃었다. LG종합상사 사장이었던 신흥순 동문(’59)은 2008년 7월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임명됐다. 민간 경영인에서 공공관장으로 거듭난 그를 연정 기자단이 만났다.



신흥순 동문

“예술은 신흥순한테 물어봐라.”

아버지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예술 접하면서 자라...

신흥순 동문은 어려서부터 예술을 접하면서 자랐다. 당시에는 화랑도 없던 시절이었다. 그림에도 미술·음악 등

다방면으로 예술을 좋아했던 아버지 덕분에 신흥순 동문도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됐다.

유년 시절 신흥순 동문은 아버지와 함께 인사동 고미술 거리와 경매를 찾았다. 아버지는 항상 구입한 작품을 보여주고 설명해줬다. 아버지는 고 임원식

지휘자(前 한국지휘자협회 명예회장)와 친구사이였다. 덕분에 클래식음악도 자연스럽게 접했다. 고등학생 때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클래식 홀을 찾았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당시 유행하던 재즈와 팝 음반을 모으면서 음악을 즐겼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신흥순 동문의 ‘예술사랑’은 계속됐다. 월급의 반을 쪼개서라도 마음에 드는 그림을 소장했다. 자주 화랑을 찾으니 어떨 때는 화랑 주인이 “맘에 드시면 그냥 가져가세요.”라며 그림을 건네기도 했다. 좋은 그림을 얻으면 화랑주인과 작가에게 감사 인사를 꼭 전했다.

직장에서는 “예술에 있어서는 신흥순에게 물어봐라”는 말이 나왔다. 그는 값이 많이 나가는 유명한 작품보다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입한다. 한 때 정수근 화백의 스케치도 소장하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예술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계발한 것이 그

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세계를 누비고 싶었던 꿈, ‘경제 외교관’이 되다.

신 동문은 외교관이 되어 세계를 누비겠다는 꿈을 품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다. 대학 3학년 때 학생군사교육단(ROTC)에 지원해 군 생활을 하면서 그는 무역업으로 진로를 틀었다. 무역업은 아들이 제대 후 긴 시간을 고시로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부모님의 바람을 충족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외국을 누비며 살고 싶은 그의 진취적인 바람에도 적합했다.

그는 1976년 LG 화학 입사 후 꿈꿨던 대로 오랫동안 외국을 넘나들었다. 1980년대에는 사우디아라비아·아프가니스탄·이란·요르단 등 중동에 머물렀고, 소련이 붕괴된 1990년대에는 동부 사회주의 국가로 건너갔다. LG종합상사 시절에는 유럽에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국가는 동부 사회주의 국가와 중동 국가였다. 그 나라들은 뛰어난 문화적 기반이 있는 반면 사회주의 영향으로 산업기술적인 면에서는 후진적이었다. 신 동문은 그곳에서 기초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신홍순 동문

산업 기반을 다지고 LG가 그 나라에 뿌리 내리는데 힘썼다.

신 동문은 “힘들었던 일이지만 왕성한 호기심 덕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사업을 위해 손으로 밥을 먹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사업하는 사람은 음식이든 먹는 방법이든 가리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중동사람들은 밥을 손으로 먹더라고. 처음에는 이걸 어찌나 했는데 별 수 있나. 나도 그렇게 먹어야지.”

그는 서울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개막식에서 감동의 눈물의 쏟은 사연이었다. “LG 사원으로 처음으로 해외 출장길에 올랐을 땐(1976년) 친가·처가는 물론이고 임원들까지 모두 나와서 배웅했어. 해외에 나가는 건 흔치않은 일이었거든. 그런데 이제(1988년)는 우리나라에 컬러TV도 생기고, 올림픽도 하는구나 싶더라고. 감동적이었지.”

“패션으로 기억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타고난 예술 감각을 접합한 LG패션 경영

1980년대까지 한국은 패션과는 거리가 멀었다. 섬유수출이 전부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서부터 한국은 패션 국가로 도약할 필요가 있었다. 신 동문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패션업에 뛰어들었다. LG종합상사 경영을 맡은 신 동문은 조다쉬·닥스와 같은 외국 브랜드를 들여오고 티피코시 등 대중적인 국내 브랜드를 개발했다.

LG패션에 종사하면서 그는 LG패션이 예술을 사랑하는 브랜드임을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 패션업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제품 개발보다 중요했다. 음악회와 전시회 및 패션쇼를 주최하는 등 예술을 활용해 브랜드를 홍보했다. 기업으

로는 처음으로 금난새(현 경기도립오케스트라 감독)씨와 예술의 전당에서 재야음악회를 시작했다. 당시 LG패션은 역삼동 GS빌딩의 예술 전시, 인터콘티넨탈 호텔 분수대 설치에도 참여했다.

1995년, 그는 LG종합상사 CF 모델로 등장했다. 대기업 사장이 광고에 등장하는 것은 지금도 드문 일이다. 경영적 위험도를 감안해 예비 촬영을 하고 촬영에 들어갔다. 결과는 ‘대박’ 이었다.

첫 번째 CF에서는 대한민국을 패션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패션으로 기억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CF에는 그의 경영철학을 담았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새롭다는 건 진보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스스로만 들어 가는 것입니다. 변화는 아름다운 힘이지요.”

CF를 찍을 때 신홍순 동문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냈다. 소련 붕괴 후 모스크바 광장에는 레닌 그라드 동상이 철거되었다. 신홍순 동문이 주인공 동상 터에 올라가 개혁과 혁신을 외치겠다는 아이디어였다. 주변의 만류로 이 아이디어는 광고에 살리지 못했다.

“러시아에 남아있는 사회주의자들이 앙심을 품고 날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야.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는데. 아쉬워”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거듭난 신홍순 동문

“푸르렀던 날의 온갖 영화를 펼쳐버린 나목. 인동의 끝자락에 매달려 지난날보다 더 실한 세움을 준비한다. 새 소망을 길어 올린다.”(죽헌 김병곤, ‘나목의 의지’) 그는 LG패션 사장 퇴임 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며 자주 읊었다는 시를 소개했다.

이 시의 바람처럼 그는 지난 2008년 7월, 예술

의 전당 사장에 취임했다. 예술의 전당 사장에 전문 경영인 출신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사장 취임 후 언론들은 전문 경영인 출신이 예술기관장(長)에 임명되는 것이 트렌드라며 크게 보도했다. 공공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를 기대하는 사회적 바람이 반영된 결과다. 신 동문 역시 ‘공기관의 유연화’ 라고 자신의 임명 배경을 자평했다.

“예술인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신 동문은 예술과 경영은 고객에 따라 수요를 맞추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봤다. 그러나 예술의전당은 공공기관의 역할이 우선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윤에 직접적으로 관련 되지 않아도 예술의전당은 해야 할 일이 많다. 예술의전당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예술을 제안하고, 예술 전시, 공연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야 한다. 또한 격조 높은 예술을 위해 아직 묻혀있는 예술가 및 예술 분야를 개발해야 한다.

이익추구도 포기할 수는 없다. 사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일하고 싶은 근무 공간’을 만드는 것도 그의 일이기 때문이다. 요즘 그는 예술의 전당에 사회 기부를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비예술 분야의 잉여 자본을 적자인 예술 분야에 돌리게 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업무다. 그는 예술의 전당 소속 예술가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知(지)보다 德(덕)을 쌓아라”

마지막으로 신 동문에게 연정에 남기고 싶은 말을 부탁했다. 대답은 간단했다. ‘덕(德)을 갖추 것’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

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LG종합상사 사장일 때도 그는 직원들에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NO'를 말하라고 주문했다. 덕을 갖춘 리더는 반대 의견도 겸손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 동문은 연정 후배들이 덕을 갖춘 리더로 성장하길 바랐다.

‘다이너믹’한 인터뷰였다. 그럼에도 두 시간 남짓했던 인터뷰는 유쾌하고 잔잔했다. 신흥순 동문 덕분이었다. 그는 유쾌하고 부드러운 반면 진취적

이고 도전적이기도 하다. 그는 ‘멋쟁이 신사’다. 신 동문을 닮아 예술의전당이 사회에 기여하는 ‘유연한 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 해 본다.

※ 신흥순 동문과의 인터뷰는 2009년 2월에 이루어졌으며, 11월 21일 신 동문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 / 이지혜 기자



"시민운동에 꺼지지 않는 불을 켜다"

에너지 시민연대 사무처장 **이기명** 동문('83) 인터뷰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한 편에 자리 잡은 한적한 카페에서 에너지 시민연대의 이기명 사무처장('83)을 만났다. 이기명 동문은 대학졸업 후 20년 동안 시민운동가의 길을 걷고 있다. 다양한 진로가 있었지만, 이 동문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섰다. '자신이 꿈꿨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운동에 뛰어든 이 동문은 지금도 열정적으로 숨 쉬고 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외모에 단아한 미소가 아름다운 시민운동가 이기명 동문의 삶과 꿈을 연정기자단이 마주했다.



에너지 시민연대 사무처장 이기명동문

쾌활한 '여자대장부'

이기명 동문

유년시절 이기명 동문은 소문난 여장부였다.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도 대장노릇을 지낸 탓에 어머니는 가끔 "니 여자 맞나?"며 애정 어린 타박도 하셨다. 자유로운 집안

분위기에서 자란 덕에, 남아선호사상이 강하던 1960년대였지만 이 동문은 쾌활하게 성장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특유의 활달함과 친화력으로 남학생들과도 우애를 나눴고, 여학생들과도 잘 어울렸다. 연정 학우들 사이에서 그녀는 친구

들을 하나로 모으는 존재였다. 도도한 여학생들도, 수줍어 말이 없던 남학생들도 털털한 부대표였던 그녀 앞에선 모두 마음을 열었다.

사회를 고민하기 시작하다

1980년대 사회는 대학생이었던 이기명 동문이 사회에 대해 고민하는 시공간이었다. 데모의 요지였던 연세대학교의 교정에는 언제나 눈시울을 시리게 만드는 최루탄의 향기가 가득했다. 역사적으로 절대 일어나선 안 될 광주사태 등을 지켜보았던 대학생들은 사회의 모습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숙명 같은 고민을 껴안고 살아야 했다. 사회과학도였던 이기명 동문에게는 더욱 당연한 일이었다.

"불행한 사회 환경 속에서 일신의 안정을 위한 고시공부에 매진하는 것은 나에게 사치였어요." 이 동문은 사회를 고민하며 보냈던 자신의 대학시

절을 회상했다.

무거운 시대상황에 짓눌려 대학생활을 보내던 이기명 동문은 자신을 이끌어줄 멘토가 없었고, 사회에서도 아무런 대답을 얻지 못한 채 졸업했다. 혼란스러운 고민을 계속하며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나, 대학원에서도 이 동문은 자유를 얻지 못했다.

“연세대학교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데, 나는 진리도, 자유도 얻지 못했어요.”

영진 신타래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동문은 부딪쳐보자는 각오로 사회에 발을 내디뎠다. 그녀가 내딛은 곳은 1980년대 후반, 한국사회에 막 발아하기 시작한 ‘시민운동’이었다.

YMCA 환경 사업부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하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자.”

이것이 시민운동을 시작한 이 동문의 각오였다. 이 동문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봉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처음 시민운동에 나선 이기명 동문은 기독교청년회(YMCA)의 문을 두드렸다.

“YMCA는 보편적이라 좋았어요. 특정 분야만의 시민운동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었으니까.”

이기명 동문의 단아하고 소박했던 미소는 어느덧 여장부의 기상이 느껴지는 호탕한 웃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동문은 이어 말했다.

“게다가 YMCA는 국제적이고 지방조직이 원활하게 조직되어 있었으니까, 시민운동을 차근차근히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990년대 초반, 이 동문은 YMCA에서 환경 사업부를 맡게 되었다. 인간다운 보편적인 삶을 추

구하는 이 동문에게 환경 사업부는 천직이었다. 마침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원까지 정치학만 공부해온 이 동문에게 낯설고 생소한 언어로 가득 차 있던 환경 이슈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었다.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그냥 무작정 책을 뒤지는 길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때 환경 데이터베이스 확립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구요.” 이때부터 이 동문은 국내 서적과 외국 서적을 넘나들며 끈질기게 환경문제를 연구했다.

녹색 소비자 운동과 에너지 시민연대

YMCA에서 환경문제를 다루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이 동문은 환경문제의 근본을 파헤치지 않으면 환경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근대화 과정에서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가 맞물려 돌아가며 만들어진 풍요를 누린 우리는, 환경오염이라는 부산물에는 너무도 무관심해요. 환경문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노력도 중요한데 말이죠.”

환경을 생각하며 소비하는 ‘녹색소비자 운동’을 진행했던 이 동문은 소비자는 자발적인 조직화를 통해 생산자를 환경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유엔 환경과 개발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동문은 많은 영감을 얻었다.

‘우리 한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삶이란 무엇일까?’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원인은 에너지 소비에 있다고 생각한 이 동문은 많은 폐해를 낳고 있는 화석연료 중심의 한국 사회에 필요한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압축적으로 100년 사이에 일어난 모든 환경재해들은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 소비 시스템이 근본적 원인이예요. 대안적 삶을 위해선 에너지 소비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소비자 녹색운동부터 환경농법, 환경음식까지 여러 분야를 아울렀던 이 동문의 관심사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에너지 문제’로 좁혀졌다.

그러던 중 2006년, 전국 280여 곳의 환경, 소비자, 여성, 청소년 등의 NGO가 모여 만든 <에너지 시민연대>가 탄생한다. 에너지 문제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믿었던 이 동문은 <에너지 시민연대>에서 사무처장을 맡아 일을 시작한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어 에너지 문제라는 보편타당한 가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에너지 시민연대에 매력을 느꼈어요.”

<에너지 시민연대>에서 이 동문은 ‘사랑온도 20℃캠페인’,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 ‘에너지 정책운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며 에너지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주력하였다.

열매는 다른 이의 손에

시민운동의 한계를 직면하다

때는 21세기에 들어선 2000년대 초였다. 당시 로선 선구적이게도 이 동문의 관심사는 에너지뿐 아니라 웰빙의 개념까지 넘나들었다. 인간의 식생활에까지 관심범위를 확장한 이 동문은 야심차게 ‘지구를 위한 식사 10계명’을 준비하여 세미나 활동 및 9시 뉴스보도 계획 등을 세웠다. 한창 기

획이 고조됐을 때, 이 동문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운동을 더 크게 진행할 수 없었다. ‘자금과 인력이 충분했다면, 이 운동은 전국적 파급력을 가졌을 텐데...’

아쉬워했던 이 동문은 얼마 후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한 방송사에서 이 동문의 기획을 그대로 가져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란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반향을 가져왔고 올해의 방송상을 휩쓸었다. 이때 이 동문은 시민사회 운동에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다.

“나의 아이디어와 그들의 거대매체를 가지고 만들어 낸 결과를 보며 차라리 내가 피디가 된다면, 많은 지원을 받고 더 좋은 생각을 많이 알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장난스럽게 아쉬움을 표현한 이 동문에게서 많은 장벽에 부딪히며 힘겹게 진행한 시민운동가의 좌절이 묻어났다.

그 후로 이 동문은 아이디어 특허를 내는 등의 방법을 찾아보았다. 그래야 저번처럼 아이디어를 빼앗겨 힘겹지만 열정적으로 걸어온 길에 대해 좌절하고, 후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곧 생각을 바꿨다. “아! 결국 나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내가 씨를 뿌리고 비록 열매는 다른 사람이 가져간들 무슨 상관이었을까.” 이 동문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입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길을 선택했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서울광장에 울려 퍼진 희망의 나라로

시련을 겪으며 성숙한 이 동문은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로 2007년 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낭만적 표어를

걸고 ‘기타합주 기네스 도전’이라는 아이템을 개발했다. 통기타와 함께 1980년대에 청춘을 보낸 이 동문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통기타를 ‘언플러그드 기타’로 치환했다. 민주주의와 시민운동과 낭만의 결합이었다.

“나의 애창곡은 이장희씨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예요”(웃음)

이기명 동문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줄이자는 목표를 갖고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는 워낙 예산 확보가 힘들어서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올리는 건 힘들었고, 대신 발로 뛰며 악기상과 통기타 동아리 장들에게 홍보해야 했어요.”

결과적으론 2000명 모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광장에 모인 1000여명의 사람들은 주변의 조명이 완전히 꺼지고 별이 하나 하나 떠오르는 것을 보며 다 같이 한대수선생의 ‘희망의 나라로’를 연주했다. 이때만큼은 서울의 심장이 별빛으로 빛났다. 별빛과 함께 울려 퍼진 통기타소리는 ‘언플러그드’ 그 자체였다. 이기명 동문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전형의 시민운동을 창조해냈다.

정치외교학과 후배들에게

사회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필수

“정외과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외교관, 행정부서 등 체제 내부로 가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부를 밖에서 견제하는 길. 너무나 크게 대조되는 길이죠. 저는 후자의 길을 갔고, 힘들 때마다 체제 내부로 가는 길도 생각 해봤어요. 그러나 제가 전자의 길을 갔더라면

지금처럼 소신껏 일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 동문은 일단 정치외교학도가 되면 끊임없이 정치, 사회, 역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을 이었다.

“졸업 후 택시기사, 주부, 외교관 등 어느 직업을 갖던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는 것이 정치외교학도의 운명이죠. 이극찬 교수님께서 “Something about the everything. Every thing about something”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박학다식하되 균형을 이루며 통합해야 하며, 자신의 분야를 찾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전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동문은 또한 후배들에게 “우리 시대에서는 시대적 상황으로 불가능했지만 여러분은 과감하게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찾아 몸을 던져요. 학교 커리큘럼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직업의 요소를 탈피하여 자신을 확장하며 미래를 준비하길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몸이 편치 않은 이기명 동문은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며 지난 20년간의 시민운동을 돌아볼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열정으로 이끌었던 2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잠시 인생을 선회하는 것이다.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시간을 가진 이기명 동문이 또 다른 창조적인 시민 프로그램을 전파할 것을 기대해 본다.

 / 최지수 기자

- 도서 추천 -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김연('06)



21세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지도 9년째이다. 오늘 날의 시대가 과거 사람들이 꿈꾸었던 모습처럼 환상적이지는 않지만, 어찌되었건 이전에 비해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만큼 어느 것에 대해서도 함부로 옳다, 그르다를 단정 짓기도 쉽지 않다. 여러 가치들이 존중받으며, 복잡한 생각들이 나름의 근거와 지지자를 동반한 채 충돌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어떤 것이든지 나름의 옳음이 있음을 핑계로 모든 것을 관조하는 태도로 지켜보아야만 하는가?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잘 사고하고 판단하여 끊임없이 옳음에 근접하려 노력해야 할 필요성과 의무가 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나치즘에 관한 책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2차 대전 당시 나치에서 ‘유대인 전문가’였던 아이히만이 전후에 이스라엘에서 받은 재판 과정에 대한 보고서이다. 고로 이 책은 2차 대전 당시의 정치를 분석하는 여느 책들과는 다르다. 가령 히틀러가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

지, 민주주의의 실패가 어떻게 파시즘을 불러왔는지 등의 주제를 다루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왜 아이히만’이라는 한 개인이 그러한 엄청난 학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는가라는 개인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시대적인 배경 설명이 전무하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2차 대전 당시의 수많은 사건과 기록들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다. 아이히만을 비롯한 독일인 개인들의 양심은 당시의 상황과 뿔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우리와는 다른 중대한 성격적 결함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언론에서 사이코패스를 다룰 때에 그의 가정사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시시콜콜 다루는 태도에는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있다. 그 죄가 크면 클수록 악을 저지른 이를 하나의 괴물로 다루어 그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이히만은 괴물도, 가학적 성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그 어떤 성격적 결함이나 정신 질환도 갖고 있지 않았고 의사들의 의학적 진찰에 의하면 지극히 정상이었다. 단지 그는 자기 업무에 충실했을 따름이었다. (이는 아이히만이 끊임없이 주장하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임무라는 것이 수십,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정성을 들여 가스실로 이동시키는 일이었다는 점이 문제였을 뿐이다.

저자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이러한 기본적인 양심의 문제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이유로 총체적인 사고의 부재를 꼽았다. 나치는 특정 사안들에 대하여 일상어를 허용하지 않는 체제였다. 수많은 관용어구와 선전 문구가 사람들의 현실 감각을 무디게 했다.(가령 유대인 학살 계획은 ‘최종

연정추천

해결책'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아무도 악에 반 대하지 않는 사회 안에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옳 고 어떤 것이 그른지에 대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사람들은 사고하지 않았고 오직 '총통의 명령'을 준수했다. 그러나 책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스스로에 대한 기만이 언제까지나 지속된 것은 아니다.

아이히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죽음이라 는 현실을 관용어로 덮으려했다. 저자는 이러한 아이히만을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어리석은 사람 이라고 평가하지 않았다. 아이히만은 효율적인 일 처리를 지향하는 사람이었고, 그 노력은 어느 정 도 성과가 있었다. 이런 면에서 저자는 그의 어리 석음보다는 천박함을 지적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옳은 지에 대한 사고가 없다면 사상은 천박해진다.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 안에서 너무나도 평범 하게 보이는 악이 탄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숙고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나치즘 사회에 살았던 아이히만 을 다원화된 오늘날에도 읽어봐야 하는 이유다.

관련 도서

루돌프 헤스, 『헤스의 고백록』, 범우사

라인홀드 니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대한기 독교사회

필립 짐바르드, 『루시퍼 이펙트』, 웅진지식하우스

- 영화 비평 -

『굿모닝 프레지던트』

굿바이, 여자 대통령, 상상의 한계를 마주한
'서운한' 가정사

하누리(석사 2학기)



'대한민국 최 초 여자 대통령' 에게 당신은 무 엇을 바라는가. 대한민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여성 정치인은 정치가의 딸이거나, 극렬한 싸움꾼 이거나, '옆집 아줌마' 이미지를 자처한 자들이었 다. 그것이 기득권을 내어주지 않는 다수의 탓인 지, 스스로 '여자라서 행복한' 자리에 앉아있는 소 수의 탓인지를 밝히는 대신, 한 편의 영화를 이야 기하자. 우리의 상상을 이야기하자.

"건국 이래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통령을 만난다." 장진 감독의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 포스터에 쓰인 글귀다. <굿모닝 프레지던트>는 지 금껏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대한민국 대 통령을 상상해보는 영화다. 인간미도 넘치고, 국 정 운영도 잘하는 '굿' 대통령 세 명이 차례로 등장 한다. 복권에 당첨이 되면 기부하겠다고 큰소리 치고선 정작 복권에 당첨되자 어쩔 줄 몰라 하다 마음을 비운 김정호(이순재), 일본에도 큰소리 치 고 북한에도 큰소리 치다 급기야는 미국에도 조금 은 큰 소리를 치는 차지욱(장동건), 그리고 최초의 여자 대통령 한경자(고두심)다.

한경자에 대한 설명은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라는 한 마디로 충분하다. 파격이다. 하지만 그 뿐



이다. 극중에서 대통령 한경자는 하는 일이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름의 결단을 내리지도, 담대한 외교를 하거나 국민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한경자의 에피소드는 답답한 청와대 생활을 못 견디는 서민 남편 최창면과의 갈등이 중심이다. 최창면은 안사람 일을 도맡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아의 혼란을 겪는다. 한경자에게 '당신이 내 안 사람이지 바깥양반이냐'고 말하는 대목에서 이 같은 갈등은 두드러진다. 영화는 최창면의 마음 속 갈등에 조명을 한 후, 이것이 행동으로 표출되었을 때 생기는 부부 갈등에 초점을 맞춘다. 여자 대통령도 힘들겠지만, 더 힘든 건 대통령의 남편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한경자에게는 김정호나 차지욱이 가졌던 '대통령'다운 고뇌나 난관이 없다. 단지 '여자'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있을 법한 갈등이 전부다.

'국민의 신사임당'. 국민은 한경자를 이렇게 부른다. 한경자는 가족에게도, 국가에게도 엄마이자 아내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야 인정받는 신사임당이어야 한다. 그래서 한경자는 갑작스럽게 이혼을 선언한 후 청와대를 떠난 최창면을 달래기 위해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시댁으로 달려간다. 한경자의 직업과 업무는 최창면의 자아와 욕심, 그리고 어리광 앞에 굴복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은 결국 어떤 정책도, 국가도 만들지 못한다. 개인 업무와 스캔들에 휩쓸릴 뿐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최초의 여자 대통령은 여기까지다. 부드러운 연설이나 토의가 있는 국정 운영, 혹은 깨끗한 정치인 등 흔히 '여성 정치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은 없다. 감독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여성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장 감독은 단지 '대한민국 최초 여자

대통령'이 관객의 구미를 조금 당길 것이라는 점, 혹은 여자 대통령을 이 영화의 범주에 넣어야 할 의무감 정도를 인지한 것 같다.

하지만 상상력의 부족은 진보하지 않는 현실로 이어진다. 명확한 한계선이 그려진 감독의 상상력이 서운한 이유다. '대한민국 최초 여자 대통령'이라는 구호만으로 파격을 줬다고 믿는 건 충분하지 않다. 진짜 상상을 하려면, 여자 대통령이 왜 아직도 파격이어야 하는지, 왜 상상에 머물러야 하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이 영화가 관객에게, 혹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카타르시스다. 대한민국 어느 대통령도 해주지 못했던, 혹은 앞으로도 해주지 못할 것 같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거다. 그러나 김정호, 차지욱과 달리 한경자는 자기의 가려운 부분만 긁고는 임기를 마친다. 이는 '대통령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하다'라는 대사로 얼버무려진다. 하지만 그 행복이 그저 '남편을 되찾고 가정을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다면, 냉장고 앞에서 '여자로 행복해요'를 읊조리는 편이 차라리 솔직하다.

대한민국 최초 여자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고작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면, 그녀가 굳이 대통령 씩이나 되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가정에서 나온 여성의 자유와 권리와 의무를 위해 싸웠던 이전 세대에 대한 빚은 누가 갚아야 할 것인가. 남성과 맞서 싸우는 여성이 아닌, 남성과 함께 걸어가는 여성으로서 여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우리가 그들에게 바랄 수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에게 바라야만 하는 것도 많다. 우리는 조금 더 상상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의 한경자에게 말한다. 부디, 굿바이 프레지던트.

머나먼 땅 이집트, 그리고 붉은 바다에서
영생을 되찾다

-나의 도전, 20개월간의 아랍어 연수-

민웅기('03)



**“외우고시를 보지 않
겠다고? 그럼 대체
뭘 해서 먹고 살거
니?”**

27개월간의 군복
무를 마친 2006년 여
름에 ‘사회’로 돌아
온 내게 이것은 가장
피하고 싶은 질문들

중 하나였다. 사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외시를
목표로 삼아 외국어 공부에 매진해 왔으며, 고시
공부의 최대 장애물 중 하나인 병역을 마치기 위
해 입대도 일찍 한 편이었다. 하지만 정작 전역을
하고 나니 도저히 외시에 매달릴 엄두가 나지 않
았다. 내게 고시 공부는 청운(淸雲)의 꿈이라기보
다는 신림동의 네온사인으로 장식된 회색빛 우울
함에 가까웠고, 그 우울한 터널의 종착점에는 공
무원이라는 또 다른 무미건조한 삶이나 고시를 접
은 취업 준비생이라는 갈림길만이 놓여있는 것처
럼 보였다. 그래서 출발선에 자신을 세워놓고도
주저하고 있는 나를 보며 주변에서는 저렇게 묻곤
했다 - 뭘 해먹고 살겠냐고.

독일어로 ‘Immer der Nase nach.’ 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항상 자기 코를 따르라는 뜻인데,
그 숨은 뜻은 자신의 직관을 믿고 마음이 끌리는
것을 찾아가라는 것이다. 비록 외시에서는 마음이
멀어졌지만, 내 코는 여전히 외국어를 향하고 있
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영어와 독일어를 공부

해오면서 외국어를 통한 소통의 쾌감을 사랑하게
되었고, 나름의 학습 노하우도 쌓여 있었기 때문
이었다. 고시가 내 길이 아니라면 해답의 실마리
는 역시 외국어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레
서 문제는 ‘먹고 살 길’이라는 큰 그림에서 어느
외국어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일단 좁혀졌
다. 언제까지나 이런저런 큰 계획만 모래성처럼
세웠다 도로 부수고, 이것저것 따지며 돌다리를
두들겨볼 여유는 없었다. 일단 움직여야 했다.

“왜 하필이면 아랍어를 고르셨어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나는 2001년 9/11 테러,
2003년의 이라크 전쟁, 2004년의 김선일씨 사
건, 오일 머나라든지 이슬람 금융의 성장과 같은
굽직한 답변을 으레 내놓고는 한다. 물론 이러한
시사적인 주제들도 내 선택에 분명 큰 영향을 끼
쳤다. 그러나 우리네들의 삶이 위안전처럼 전개되
지는 않듯이, 아랍어를 선택한 것도 원래는 나만
의 스킬을 찾아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소위
‘블루 오션’ 전략에 가까웠다. 2006년 당시 중동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역 전문가가 부족
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으나, 중
동을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아랍어나 페르시
아어, 터키어를 배울 기회는 국내에서 매우 제한
적이었다. 그렇다면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틈새로 삼아 진입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기회가 오
리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 결정에는 내 청개구리
기질도 한 몫 했지만.

이런 사연으로 2007년 1월부터 아랍어를 공부
하게 되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 하
나라는 악명에 걸맞게 초반부터 진도가 좀체 나가
지를 않았다. 독학으로 끙끙대다가 강남역 부근에
있는 모 학원에 등록해 배워보기도 하고, 학원 선



제2차 한·중동 협회에서 아인샴스대학 한국어과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는 민웅기('03) 학우

생님이었던 이집트 사람을 집에 모셔다가 과외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2007년 1학기의 절반이 다 지나가도록 진전은 없었다. 원래 외국어 학습을 시작할 때는 아직 호기심에 불타는 초기의 여세를 몰아 문법과 기초 어휘, 표현을 다져놔야 공부에 본궤도에 오르고 흥미도 잃지 않는 법이다. 하지만 대학교 공부에 치여 아랍어를 본궤도에 올리기는 커녕 추락을 걱정해야 할 판이 되니 조바심이 났다. 외무고시를 접은 데 이어 아랍어에서도 실패하면 자신을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결단의 순간은 4월 중순에 왔다. 청경관에서 셀러드와 김밥을 먹다가 문득 ‘다음 학기부터 휴학하고 바로 이집트로 연수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리아도, 요르단도 아닌 이집트로 단숨에 결정을 내린 것은 과외 선생님이 이집트 사람인 연유도 있었지만, 내게 더 이상 이런저런 옵션들을 고려할 심리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심정에 부모님을 설득하고 나서 바로 비행기 티켓을 결제하고 현지에는 어학원에도 등록했다. 그리고 6월 기말고사가 끝난 1주 후에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로 무작정 날아가 호텔에 짐을 풀니 비로소 조급함이 사라지고 현실이 무섭게 어깨를 짓눌러왔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머나먼 타국에 혼자 떨어진 것이다. 그것도 익숙지 않은 희한한 나라에.

그랬다, 이집트는 참으로 희한한 나라였다. 도착한 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8차선 도로에 차선도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고 길거리에는 승용차들과 당나귀들이 나란히 달렸다. 반포 고속터미널 부근의 공기를 일곱 배로 농축한 듯한 숨막히는 대기 오염과 온갖 소음이 카이로를 뒤덮고 있었다. ‘세상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카이로 또한 그렇게 위협적인 이미지로 다가왔다. 오로지 탈출구로 삼아 끊어둔 귀국 항공권만이 내게 위안이 되었다.

다행히 이 귀국 항공권은 결국 사용하지 않았다. 어학원에 다니면서 생활에 규칙적인 리듬이 생기고, 아무 걱정 없이 아랍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니 점점 이집트도 살만한 곳으로 느껴졌다. 언어 교환을 시작하면서 만난 이집트인 친구들은 현지에 적응하고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학원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로부터 큰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일본 외무성에서 파견된 외무 공무원들, HSBC 두바이 지사에서 어학 연수를 나온 핀란드인 공인재무분석사(CFA), 심지어 군사기업인 블랙워터에 근무하는 전직 해병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아랍어를 배워보겠다고 학원에서 버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일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집트 현지의 한인 유학생회는 아랍어를 전공으로 배우는 학생들 일색으로 되어 있어 이런 다양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현지 유학생회의 문제는 사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집트인들의 독특한 아랍어 방언과 다소 거칠게 느껴지는 문화에 대해 편견 내지 혐오감을



홍해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갖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았고, 이는 어학연수를 와서는 학원 교실에서나 쓰이는 소위 ‘표준 아랍어’에 집착하며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꺼리는 잘못된 행태를 낳고 있었다. 유학이나 연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두 자산은 언어와 현지인 친구인데도 말이다. 연정인 여러분들 중 지금 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각설하고, 현지 유학생회와 겪은 이런저런 마찰 이외에도 이집트 연수 기간 동안 나를 힘들게 한 일들은 여럿 있었다. 심각한 공해와 강렬한 자외선 때문에 피부 알레르기가 일어나 3주 동안 고생한 적도 있고, 택시 기사와 요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일례 행사에 가까웠다. 아랍어 공부도 첫 6개월 동안은 몇 번씩이나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쉽지 않았다. 심리적 피로가 쌓여 슬럼프에라도 빠지면 아예 학원이나 과외를 빠지고 집에서 멍하게 드러누워 있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집트는 그럴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면서 내게 위안을 주고 열정을 불어넣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원한 지중해 바람을 맞으면서 기분 전환을 하고, 시와의 사구 사막에서 별들을 바라보며 미래를 고민해보고, 오래된 모스크에

서 차분하게 사색에 빠져보기도 했다. 그리고 홍해, 즉 ‘붉은 바다’에서 처음 배우게 된 스킨스쿠버 다이빙은 결국에는 프로페셔널 자격증까지 따게 했을 정도로 나를 매료시켰다. 또한 아랍어에도 이집트만큼이나 비밀스런 매력이 있어서, 마치 문화인류학자라도 된 것처럼 아랍어 어휘와 표현 속에 숨은 이집트인들의 문화와 사고 방식을 발견해내고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나는 2006년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최하는 BUY KOREA 등 각종 행사에 아랍어 통역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중순에 열린 제 2회 아랍문화축전에서는 의전 및 통역팀장으로 활약했다. 또 글로벌 라운지에서 무료 아랍어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 김종도 교수님의 초/중급아랍어 조교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연세대학교에 최초로 생긴 중동 학회인 ‘엘-네페제(<http://www.menakorea.com>)’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PADI 다이브 마스터(Divemaster) 자격을 가지고 스쿠버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런 경력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아랍어와 이집트, 그리고 붉은 바다가 내 가슴 속에 다시 불어넣어준 열정과 도전정신이다. *Immer der Nase nach!*♣

연세국제평론과 함께한 1년



성신영('05)

2009년 10월, 들뜨고 설레는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지난 6월 연세국제평론 창간호(제 1판 1호)의 초판 인쇄본을 받아 들고 느꼈던 벅찬 감정을 형용할 단어를 아직 찾지 못했는데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이 벌써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연세국제평론의 부편집장으로 지내온 지 1년이 되는 올해 11월이 되면 내가 성장한 만큼 한층 더 깊어진 모습의 그와 마주하고 싶은 작은 바람이 있다.

‘연세국제평론’은 학부생 중심의 학술단체로, (포괄적 개념의) 국제학 관련 화두들에 대한 학생들의 연구를 장려하고, 그 성과를 공개적으로 출판케 하는 창구가 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회원 중 연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가 명칭 때문에 특별히 ‘국제정치학’에 그 범위가 한정된 학술지로 오해를 사는 일이 종종 있는데, 연세국제평론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각종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분야의 화두들을 전 지구적인 시각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1년에 총 2회 출판되는 연세국제평론지는 Cover Story, 연구보고서, Featured Essay, Op-ed 및 특별외부기고,

그리고 영화와 책에 관한 글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섹션에 걸쳐 연세인들 뿐만 아니라 타교생 및 외부관련인사로부터 글을 기고 받고, 연세국제평론의 섹션 별 에디터들과 저자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및 자체 편집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글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009년 6월, 한영 혼용 학술지인 연세국제평론 제 1판 1호가 학부생들의 손으로 정식 출간되었으며,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국제학 대학원 도서관에서 본 지를 만날 수 있다.

학술지 관련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게 된 것은 1대 편집장(양소망, '05)과 캐나다 맥길 대학교(McGill University)로 교환학생을 함께 가게 된 인연이 계기가 되었다. 맥길 대학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와 관련한 두 종류의 학술지 - McGill International Review, McGill Foreign Affairs Review- 가 출간되고 있다. 추가 조사를 통해 해외 유명 대학에서는 학사언론 이외에도 직/간접적으로 학교 측에서 지원 및 운영하는 학술지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이들 중 특히 런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LSE)의 Clare Market Review의 경우 창간된 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학생은 물론이고 교수들과 그 외 저명인사들의 참여를 통해 알차게 운영되고 있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사회과학대학이나 정치외교학과 자체적으로 학술지를 출간하려는 움직임이 간간히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름의 사정과 한계점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지 못한 역사를 알게 된 후 연세인들의 쓰고자 하는 욕구와 자발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지적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자각과 이를 만족시키고 싶은 ‘갈증’은 더욱 심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면 되지!” 호기로운 시작이었지만 돌이켜 보면 한 치 앞을 보지 못한 꽤나 순진한 생각이었다. 아무런 소속도 없이 말 그대로 ‘학부생 중심’으로 시작했던 연세국제평론이 정치외교학과 김기정 교수님을 지도교수님으로 모시고, 창간 3개월 만인 2009년 9월 부로 연세대학교 교책 연구원인 동서문제연구원에 소속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학생의 신분으로 (학술)단체를 만들고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그 본연의 학업을 수행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지난 1년 여간 여러 한계점들을 절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국제평론이 다가오는 첫 돌을 별 탈 없이 맞게 된 것은 모든 회원이 이 단체의 첫 항해에 실은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보여준 노력과 의지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첫 회원모집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발로 뛰어야 했던 배포작업, 원고마감을 앞두고 밤샘철야작업으로 지새운 신촌의 밤, 초판 인쇄물들을 직접 찾으러 가던 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시나리오들과 그 중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하느라 오간 열띤 토

론들, 지금까지 연세국제평론과 함께 한 시간들은 치열함, 그 자체였다.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창의적 발상, 문제상황에 대한 대안적 돌파구의 가정과 그 실현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작업들은 이제 생각의 집을 나와 능동적으로 현실과 대면해야 한다. 이것이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연세국제평론이 품었던 이상이였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학문연구는 그 방향과 기술적인 접근방법에 있어서 다각도의 진화를 거듭해 왔으나, 변치 않는 핵심은 본질적인 목적, 즉, '앞'과 그를 위한 '탐구'에 대한 지적 욕구일 것이다. 연세국제평론은 학생, 교수님들 및 연세대학교와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및 발전해 나가고자 하며 장차 연세대학교를 대표하는 학생 중심의 국제 평론지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는 대한민국 명문사학인 연세대학교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될 것임은 물론, 더 나아가 연세대학교가 우수한 인적자원의 학문탐구를 장려하는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서 거듭나는 데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SEND YOUR VIEWS TO

**YONSEI INTERNATIONAL
AFFAIRS REVIEW**

yonseireview.com

연세국제평론은 국내 유일의 학부생 중심 국제학 학술지로서 국제정치를 중심으로 국제경제, 국제법, 국제 경영 이슈 등 국제학 전반을 연구범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연세국제평론에서 현재 젊은 예비학자들의 외부 기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칭찬 이어가기 꼭지는 연정공동체 구성원 간에 스스럼없이 칭찬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기획됐다. 연정 동문, 교수진, 학부생, 대학원생 모두가 이 코너를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 칭찬 이어가기의 다섯 번째 주자는 LG텔레콤 경영 기획팀 차장 이재원 동문('91) 이고, 여섯 번째 주자는 KBS 탐사보도팀 기자 김태형('88) 동문이다.

다섯 번째 주자 |

LG텔레콤 경영 기획팀 차장 이재원 동문('91)

저의 대학시절을 떠올리면 연희관과 그곳에서 어울려 토론했던 친구들, 그리고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던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당시에는 각종 이념의 대립, 탈이



념의 등장 및 경제위기 등 사회가 많이 어수선하여 대학생으로서 사회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요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회적 이슈와 사적인 고민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저녁에는 술도 함께 걸치며 대학생활의 운치와 낭만을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제 대학생활의 즐거운 추억입니다. 저는 학교 공부는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함께했던 기억과 추억은 지금까지도 오래도록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인회계사(CPA)시험을 통해 회계 법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현재는 통신회사 경영기획 업무를 하는 등 전공과는 다른 진로를 걸어왔지만 대학 생활 들었던 전공과목 중 몇 과목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연정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먼저 연정에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지금도 그들을 보면 학창 시절이 절로 떠오릅니다. 또한 학창 시절 모든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했던 습관은 사회에 나와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후배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눈앞에 닥친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면 더욱 큰 걸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경제 환경 때문인지 진로 및 취업에 몰두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깐 눈앞에 놓인 문제에서 벗어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자신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연정은 이렇게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후배님들도 조금만 있으면 사회에 나오시게 되실 텐데 사회에 나오기 전에 부디 후회 없는 학창 생활을 만끽하시고 스스로 '연정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길 바랍니다.

칭찬 이어가기 여섯 번째 주자로 현재 KBS의 기자로 활동하시는 김태형('88)학우를 추천합니다. 학창 시절에 많은 배움과 도움을 받았던 선배입니다. 약간 엉뚱한 면이 없지 않으나 확실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최지수 기자

여섯 번째 주자 |

KBS 탐사보도팀 기자 김태형 동문 ('88)

10여 년 전 나는 문화부 기자였다. 그 시절 바로 옆 자리에는 회사 일 년 후배가 일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 일한 지 서너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후배가 신촌에 얹힌 사연을 풀어놓는데 골목, 골목까지 지리를 꿰차고 있었다. 신기했다.



“신촌, 참 잘 아네. 거기에서 좀 놀았나 봐?”

내 물음에 후배 눈이 동그랗게 됐다. 조금 격앙된 목소리가 내게 꽃혔다.

“김 선배,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뭘 몰라?”

나의 무덤덤한 반응이 뒤통자였고, 후배는 답변 대신 질문을 던졌다.

“김 선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어요?”

“몰라. 그런 걸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내 이야기에 후배는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한마디 비수를 던졌다.

“이래서 연대는 안 돼.”

이래서 연대는 안 돼, 이래서 연대는 안 돼... 껌가를 때리는 ‘이래서 연대는 안 돼...’ 미안해서 그랬을까, 살짝 웃음이 나왔다. 나지막이 입을 뗐다.

“너... 연대 나왔냐?”

내 물음에 돌아온 대답은 “오아, 몰라!”라는 짜증 섞인 독백뿐이었다. 그 순간 독수리 동상이 떠올랐다. ‘독수리는 원래 혼자 놀잖아’라는 말이 입술 끝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혼자 노는 짐승인

호랑이도 대한민국에서는 떼 지어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 아닌가? ‘독수리는 혼자 놀아요’라는 명제로 후배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멋쩍게 웃다가 두 팔로 후배를 감싸 안았다. 냉랭해진 후배를 그저 체온으로 풀어주려 했다. 어색하고 촌스러운 포옹을 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니 후배가 나보다 크게 나올 것도 없었다. 알고 보면 그도 나처럼 몇 달이 지나도록 학교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순간,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느낌 한 조각은 딱 이랬다. 이래서 연대는 안 돼...

연정 학생들, 사회 나오면 나처럼 대책 없이 쿨~한 선배들을 종종 보게 되지 않을까 싶다. 어쩌면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부터 ‘연대는 안 돼’라고 낙담하거나 푸념할 필요는 없다. 교훈이 말해주듯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이지, 맹목적인 동문 만만세는 아니니까.

그렇다면 연정 후배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실력을 쌓는 길밖에 없다. 책 한 줄이라도 더 읽고, 더 고민하고, 더 치열하게 사는 수밖에 없다.

칭찬 이어가기 다음 주자로는 한국의 워렌 버핏을 꿈꾸는 손양철('88) 동문을 추천한다. 손양철 동문은 대학시절 남들이 좇불처럼 살아갈 때 햇불처럼 살아가는 등 열혈남아로 20대를 보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맡기도 했던 손 동문이 ‘연대는 안 돼’가 사실은 잘못된 프레임이고 ‘연대는 돼’가 숨겨진 진실이라는 사실을 깔끔하게 설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

👤 / 김태형 기자

『연정소식』은 1995년 창간됐고, 2008년 3월에 속간됐습니다. 본 호는 속간 3호(통권 제6호)로서, 2009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의 소식을 기사화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동문 여러분의 소식을 모으고자 합니다.

전화: 02-2123-2940 / FAX: 02-393-7642

E-mail: yjpress@yonsei.ac.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262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편집후기



2009년 3월 연정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서 스스로 시작한 연정기자단이었다. 의욕은 높았지만 취재부터 기사의 작성까지 어설픈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령기자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배려를 받았다. 어찌다가 2학기에는 편집장이라는 직책을 맡았다. 미숙한 편집장 때문에 많이 고생한 다른 기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그리고 따끔한 질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명섭 교수님과 최연식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김근우('04)



뒤늦게 합류해서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많이 도와주지도 못해서 다른 기자단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한 뜻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인생(?)에 대한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연정의 후배들, 그리고 동기들, 선배님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연정기자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 영업부장이자 면접부장을 하고 싶은 김태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김태형('04)



어느날 김근우 편집장이 조용히 이야기 하자며 데려갔다. "너... 단독취재가 있어" 그것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이재원('05)



주니어 세미나 들어왔다가 낯인 연정기자단. 알고 보니 연정기자단에 가입되어 있었다(이미 철회 기간을 지난...) 시간이 갈수록 기사를 써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부담스러웠다. 기사를 써 본 적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수업 시간과 오후 회의에 정말 열심히 참여해 얼굴 도장을 찍었다. 그냥 얼굴 도장만 찍으려 했던 회의들이었는데 그 자리에 있다보니 그 자리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이 재미있어 얘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가 기자단의 한 사람이 되었다. 모두가 함께하는 복성각에서의 만찬과 50도 짜리 술 한 잔까지 모두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연정기자단 화이팅!

/정지연('05)



선배의 제안에 선했 시작하게 된 연정기자단. 이제는 '연정'을 떠올릴때마다 '연정기자단'이 먼저 떠오릅니다. 돌아보니 벌써 2년을 함께 했습니다. 문제의식과 투철한 기자정신이 부족한 기자였지만 다들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자단에서 고마운 분들을 많이 만나 배우고 갑니다. 이집트서 사막의 별을 보며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연정기자단.

/이유정('06)



제게 연정은 기쁘고 숨가쁜 공간입니다. 이번 연정소식지 발간까지 기꺼이 숨을 내어준 이유정 前편집장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김명섭 교수님과 최연식 교수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이지혜('06)



룰루랄라! 연정기자단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섭교수님, 최연식교수님 많은 도움 정말정말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김정환선배님과 백래혁선배님, 제 맘 아시죠? 히히. 늘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나의 릴로, 유정아. 이집트에서 별

을 따다 내 가슴에 새겨주오! OK?

Muchas gracias a mis amigos del todo el mundo. TQM!! muak~!

다음학기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선배님들, 동기여러분, 후배님들! 기대해주세요있길 바랍니다.

/김연미('06)



4학년이 되어서야 동아리 활동을 처음 해봤어요. 졸업 전에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객식구(?)지만 눈치 안주고 잘 대해주시는 연정기자단 선배, 친구, 후배분들, 그리고 최연식교수님께 감사하던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설픈 활동에도 구박않고 많이 도와준 것도 정말 고마워요! 최연식 교수님, 편집장 근우오빠, 그리고 다른 모든 기자분들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

뒤돌아가요!

/홍이슬('06)



연정이란 공동체에 있으면서 '그 공동체에 진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

항상 고민하던 차에 연정 기자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단 활동을 통해 제게 '연정'이라는 의미는 더 커지고 깊어졌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연정 기자단, 항상 응원할게요!

/염미경('06)



전공을 받아 정외과에 소속된지도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진짜 '우리'라는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연정소식지를 통해 부족하게나마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김윤희('07)



부족함을 매꾸려 선배들의 뒤를 쫓다니 많은 걸 배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연정인들의 가지각색 삶이 담겨있는『연정소식』이 모두에게 소중하게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연정인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최지수('08)



'대학 강독'이라는 말에 낚여서 얼떨결에 들어온 연정 기자단이었지만 한 학기 동안 좋은 사람들과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그 알찬 말들을 연정인 모두와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연('08)

그저 주니어 세미나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내가 '연정소식'지에 기사까지 쓰게될 줄이야...

비록 우연한 기회로 참여하게된 연정기자단이지만, '연정소식'지 제작에 참여하면서 꽤 즐거웠습니다. 연정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구요. 잘 닦인 것 같습니다.

P.S 많지도 않은 원고 쓰면서 늦장 제출(^;;;) 너무 미안했습니다.

/김현규('04)